

(사)한국슈타이너인지학센터 소식지 제 5호

2021 봄·여름호

실천하는 인지학

# 반도르프 교육예술





### 봄

겨울과 여름 사이의 계절로, 입춘(2월 4일경)에서부터 입하(5월 5일경) 전까지를 말한다. 천문학적으로는 춘분에서부터 하지까지가 봄이지만, 기상학적으로는 3, 4, 5월을 봄이라 한다. 봄은 초목의 싹이 트고 성장을 시작하는 따뜻한 계절, 부활과 소생, 성장과 희망의 계절이다. 봄은 새 생명에 대한 약속을 전하는 동시에 우리에게 잃어버린 생명을 떠올리게 만든다. 동물들 역시 겨울잠에서 깨어나 그들의 보금 자리를 꾸미기 시작하여 다시 활기를 찾는다.

계절타자를 꾸밀 때에는 꿈꿨던 차가운 땅 속을 뚫고 새 생명을 싹틔우는 어린 싹을 연두색으로 표현하고 조금씩 꽃망울을 터트리는 봄꽃을 잔잔하게 꽃아 주어 활기를 되찾는 분위기를 느낄 수 있도록 해준다.



## 사단법인 한국슈타이너인지학센터는

인지학을 지속적으로 연구하고 그 응용 분야들을 한국에 널리 알리고자 1999년 연구모임을 시작으로 2000년 3월 발족하여 2008년 사단법인이 되었습니다. 다양한 실천 분야 가운데 특히 우리 사회의 교육 현안에 자극제가 될 수 있는 발도르프 교육예술을 전달하는 데 힘쓰고 있습니다.

인지학센터는 유네스코가 선정한 21세기 혁신교육 모델 “아이의 본성을 존중하는 발도르프 교육”을 실천하는 영유아 및 학교 현장, 방과후 돌봄교실, 혁신학교 등과 교류하고 있습니다.

사단법인 부설로 2011년 설립된 **나임발도르프평생교육원**은 발도르프교육 전문기관으로 우리 사회의 건강한 보육과 교육, 자녀 교육을 위한 가치관 정립을 위해 현장 교사와 학부모에게 다양한 강좌를 펼치고 있습니다.

2016년 설립된 **한국인지학출판사**는 슈타이너 전집과 발도르프 기본교육서 번역이 절실하다는 여러분의 요구에 부응하여 긴요한 자료들을 간행하고 있습니다.

나아가 2017년에 설립된 **서울오이리트메움예술원**에서는 새로운 동작예술인 오이리트미를 통해 발도르프 교육예술 운동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 목차

## 05 2020 여름 집중코스

- 06 B코스 - 영유아 교사를 위한 집중코스
- 09 C코스 - 영유아 졸업생을 위한 심화과정
- 14 D코스 - 학교교사를 위한 집중코스

## 19 2020 가을 국제세미나

- 20 인지학 영혼달력
- 21 감각발달론

## 22 2020-2021 교사 아카데미

- 23 발도르프 영유아 교육예술가 양성과정
- 28 발도르프학교 담임교사 양성과정
- 31 발도르프학교 수공예교사 양성과정
- 37 오이리트미 전문 교사 양성과정

## 40 루돌프 슈타이너 어록

## 44 응용 인지학의 현장 소식

- 45 실습기관 탐방 보고
- 49 안양발도르프학교
- 51 대전자유발도르프학교
- 53 영유아 교육연대 현장소식

## 54 빛나는 2021, 여럿이 함께

- 55 내부강좌 이모저모
- 59 2021년 교육일정
- 61 신간소개
- 64 후원안내
- 68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
- 69 후원신청서
- 71 광고

(사)한국슈타이너인지학센터 소식지 제5호

실천하는 인지학  
**발도르프 교육예술**

2021 봄·여름호

발행인 이정희  
편집인 이창미

편집팀 송지윤, 장주현, 최은영, 허지혜  
디자인 김다은  
표지그림 안미순  
도움주신 분들 김세정, 김윤희, 김태영, 백미경, 여상훈, 유병현, 한은숙  
제작 씽크스마트

발행일 2021년 04월 15일  
발행처 (사) 한국슈타이너인지학센터  
04090 서울특별시 마포구 독막로 230 우리빌딩 2층 6층  
전화 02-832-0523  
팩스 02-832-0526  
이메일 anthroposophy@hanmail.net  
홈페이지 <http://steinercenter.org>

이 소식지의 제호는 박윤정타이포리의 '신영복' 체를 사용하였습니다.

# 2020 여름 집중코스

- 06 B코스 - 영유아 교사를 위한 집중코스
- 09 C코스 - 영유아 졸업생을 위한 심화과정
- 14 D코스 - 학교교사를 위한 집중코스

# B코스 영유아 교사를 위한 집중코스

코로나19로 인해 2020년 여름 국제아카데미를 대신 하여 '교육예술가 집중코스'가 진행되었습니다. B코스는 영유아 교사를 위한 집중코스로 영유아 현장교사 및 발도르프 영유아 교육에 관심이 있는 분을 대상으로 방역수칙을 준수하여 3일간 과정이 진행되었습니다.

기간 2020. 7. 30(목) ~ 8. 1(토) 8:30-18:00 (35명 참석)

장소 한국슈타이너인지학센터 6층 강의실 (마포구 독막로230 우리빌딩6F)

## 정신과학에서 바라본 아동교육

이정희

영유아교육예술가로 '거듭나기' 위한 근본을 새겨본다.

## 계절 탁자와 환경 꾸미기

한은숙

일반 장식과 계절 탁자의 차이를 알아보고 자연의 분위기를 직접 연출해본다.

## 킨더라이어 연주법

이윤옥

아이들에게 평온을 선사할 수 있는 악기 하나를 확실하게 익힌다.

## 교사의 움직임과 언어조형

신영주

성인의 동작과 연결하여 교사 자신의 '말하기'를 연마한다.

## 영유아기 감각발달

엘마르 슈뢰더 / 통역 여상훈

Zoom 라이브 강의

## 영유아기 감각 발달

엘마르 슈뢰더(통역 여상훈)  
강의 발췌

“감각을 통해서 받아들이고 지각하는 것을 느끼는 것은 내면 깊숙한 곳에서 일어난다. 이런 깊은 곳에서 일어나는 내면의 작업은 지성에 의한 판단보다 영혼, 정신에 훨씬 더 가까이 다가간다.”

감각은 속이지 않는다. 그런데 판단은 속인다.

우리가 세상과 소통할 때, 한두 가지 이상의 많은 감각적 교류가 발생한다. 오늘날 아이들의 감각 활동은 많이 빈곤해졌지만, 이는 사실 감각 활동의 빈곤이라기보다는 감각 활동의 편향이라고 하는 것이 좋을 듯 싶다. 특히 시각에 많이 의존하는 편향이 두드러진다. 독일의 연구자들은 우리가 받아들이는 감각의 70~80%가 눈으로 이뤄지는 감각에 편중되어 있음을 보고하고 있다. 교육현장에서 만나는 아이들의 감각 체험은 매우 중요한데, 어른들은 감각 체험을 뒤로하고 이름을 붙이고 개념을 설명한다. 이런 설명은 아이들의 감각적 체험을 방해하고 ‘판단’하기로 들어간다.

괴테는 《색채론》이라는 책에서 ‘빨강’에 대해 이야기한다. “색의 작용은

색의 본질만큼이나 특별하다. 빨강은 우리에게 진지함, 존엄, 그리고 동시에 우아함, 매력적임, 아름다움이라는 느낌을 준다. 빨강이 어두워지면 진지함과 위엄, 존엄을 느끼게 하고, 빨강이 연해지거나 밝아졌을 때는 우아하고 매력적인 느낌을 준다.”

아이들을 가르치는 교사는 괴테처럼 색에 대해서 집중할 수 있어야 한다. 색깔의 이름을 더 많이 가르치는 능력보다 색깔의 작용과 인상을 더 많이 알아야 한다. 슈타이너는 괴테의 생각에서 조금 더 나아간다. 감각의 직접적인 체험을 방해하는 것은 ‘판단’이라고 언급한다. 이름을 붙이는 것은 판단이고, 그 반대는 직접적인 체험이다. 다시 말해 우리가 판단을 하고 이름을

붙이게 되면 직접 체험을 못하게 됨을 강조하는 것이다. 우리가 빨강을 보고 빨강이라고 말을 하거나 그 색깔에 이름을 붙이게 되면, 그 감각의 직접 체험은 이루어지지 않는다. 지성이 가르쳐준 이름을 붙이게 되면 우리의 감각적 체험은 작동하지 않고 지적인 작용으로 판단하기 때문에, 우리는 감각 체험에서 얻을 수 있는 많은 것을 놓치게 된다.

우리의 감각기관은 세상과 어떻게 소통하는가?

감각기관이 세상의 것들을 체험하는 것은 세계의 본질을 직접 알게 되는 과정이다. 감각기관을 통해서 사물을 직접 체험하는 것은 세상의 정신적인 본질로 가는 문을 열어 준다. 슈타



이너는 자서전에서, 우리의 감각적인 체험이 물질적인 것을 정신적인 것에 연결해 주기 때문에, 감각적인 체험을 통해서 세계의 본질에 접근하는 노력이 많이 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우리는 어떻게 감각적 체험을 통해서 세상의 본질에 접근하는가?

슈타이너는 감각적 체험을 통해 본질에 접근하려는 동기를 한층 더 강조한다. 무엇인가를 듣고 보고 말하고 만지는 체험을 할 때 우리 인간은 단순히 외부의 자극을 수동적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다. 감각적 체험 안에서 우리는 수동적으로 머물지 않고 그 안으로 들어가서 세상을 만들어가는 또 하나의 창조자가 된다. 즉, 그러한 “세계 과정”의 변화, 발달에서 이런 변화를 단순히 밖에서 경험하는 존재가 아니라 함께 만들어가는 공로자, 동조자가 되는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괴테는 《색채론》에서 감각적인 체험을 이렇게 말한다.

“우리의 정신이 깨어있을 때, 그릇된 것을 보지 않으며 감각을 신뢰하며 의지할 수 있다. 신성한 눈길로 기쁘게 바라보라. 그리고 부드럽고 풍요로운 이 세상의 들판에서 방황하라.”

감각 체험은 인간의 교육과 성장발달에 연결된다.

감각 조직은 인간 본질에 속해 있는 것은 아니라 인간이 지상의 삶을 이어가는 동안 우리 밖의 환경으로부터 우리 안으로 들어와서 만들어지는 것

이다. 세상을 지각하는 우리 눈은 사람 안에서는 공간적이지만 이 세계 안에서는 본질적이다. 말하자면 우리가 보는 것은 공간이지만, 이 세계 안에서 우리의 눈은 본질을 본다는 것이다. 그리고 인간은 자신의 감각을 통해서 세계를 체험하면서 정신적, 영혼적 본질을 확장한다. 감각 체험은 단순히 사물을 경험하는 정도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객관적으로 보는 동안 정신적, 영혼적 본성이 넓어지고 확장되어 세계의 본질을 체험하게 된다는 것이다. 인간은 지상의 삶을 영위하는 동안 자신을 둘러싼 물질적 환경을 받아들이고 체험할 뿐 아니라 그가 가진 정신적, 영혼적 본질을 가지고 바깥 세계로 자라나고 성장해 나가는 것이다. 슈타이너는 자서전에서 우리가 본질적인 이데아 세상 안으로 어떻게 들어가게 되는지 이야기한다. 우리를 세계의 본질에 접근하고 이데아의 세상 속으로

들어가도록 만드는 것은 감각 체험으로, 이 감각 체험은 물질적 세상에 사는 우리를 정신적인 체험으로 연결해주는 도구라고 설명한다.

어제 여러분은 빨간색을 보고, 이름 외에 따뜻함, 온기 같은 것을 느낀다는 이야기를 하였다. 이렇게 감각적인 지각을 받아들이고 경험하는 과정이 깊어지면, 우리 내면 안에서 심오한 작용이 일어난다. 오늘을 살고 있는 우리 인간들은 조금 더 내면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감각 체험을 통해서 받아들여지는 것을 표현하는 방식에 주의를 기울일 수 있어야 한다. 🍷



# C코스 영유아 졸업생을 위한 심화과정

코로나19로 인해 2020년 여름 국제아카데미를 대신 하여 '교육예술가 집중코스'가 진행되었습니다. C코스는 영유아 졸업생을 위한 심화과정으로, 발도르프 영유아 아카데미 졸업생을 대상으로 방역수칙을 준수하여 3일간 진행되었습니다.

**기간** 2020. 8. 3(월) ~ 8. 5(수) 8:30-18:00 (18명 참석)

**장소** 한국슈타이너인지학센터 6층 강의실 (마포구 독막로230 우리빌딩 6F)

## 감각발달과 언어조형

**신영주**

슈타이너의 언어조형을 통해 아이의 감각발달을 체험해본다.

## 킨더라이어 연주법

**이윤옥**

“천상의 소리”를 내는 킨더라이어 연주는 산만한 아이를 고요로 이끌고 연주자에게도 내적 안정감을 준다.

## 자연과 자유 - 슈타이너 교육론의 형성 과정과 그 의의

**여상훈**

서구 인문주의 교육 사상이 이해하는 인간이란 무엇인가? 발도르프 교육학은 교육 철학사 속에서 어떤 위치에 있을까?

## 교육자의 기질

**비르기트 크로머 / 통역 이정희**

Zoom 라이브 강의

## 태아 발달론

**엘마르 슈뢰더 / 통역 여상훈**

Zoom 라이브 강의

# 교육자의 기질

비르기트 크로머 (통역 이정희)  
강의 발췌

이번에 우리가 다룰 테마는 기질론입니다.

첫 번째 7년 주기인 0-7세의 상황과 기질에 대해서 언급하겠습니다.

“인지학적 발전은 수와 양으로 측정되지 않고 세상과 동떨어져 보입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인지학을 통해 세상 안으로 들어가 세상에 대한 이해가 더 깊어집니다.” (루돌프 슈타이너)

여러분들도 잘 아시다시피 0-7세의 유아 발달 전체는 신체적인 것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신체적으로 연결된 주변 세상의 모든 것이 감각들을 통해 풍성하게 체험될수록, 이는 아이들에게 발달을 위한 귀중한 자료가 됩니다. 본래 독자적인 발전이라 함은 다음과 같은 것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아주 작은 꽃과 작은 꽃잎, 그리고 보이지 않는 작은 풍뎅이, 아주 작고 사소한 벌레들을 보면서 우리는 놀랍니다. 우리는 아주 작고 사소한 것들에서 우주의 위대한 법칙을 발견하고 경탄합니다. 이렇게 경탄할 때 우리의 영혼은 고차적인 발달을 시작합니다.

아이들은 세상에 태어나서 이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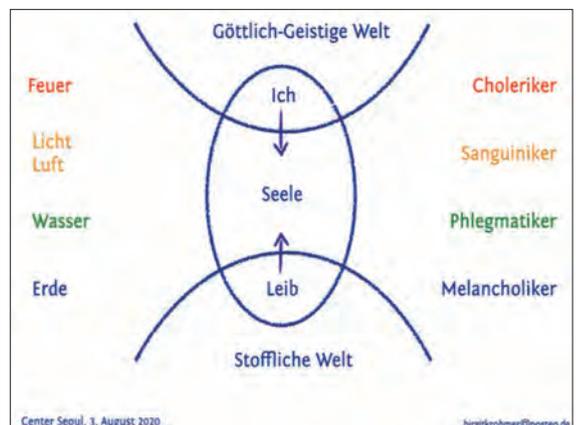
막 육화를 시작하는 어린 존재입니다. 육화 과정은 신체적으로 탄생하여 지구에 정착하는 시기입니다. 물질 세계에 아이들이 적응한다는 것은 물질 세계를 창조한 창조주와 연결되는 과정입니다. 아이들은 창조주의 세계에서 지상으로 내려온 존재이기 때문에 이미 정신 세계와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

인간학적으로 우리의 기질은 무엇과 연결되고 어디에 위치해 있는지 알아봅시다.

물질 세계에 속한 우리 ‘몸’은 손으로 더듬어서 느낄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독일어로는 ‘라이프Leib’,

(신)체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그리고 윗부분에 해당하는 ‘나/자아(das Ich)’는 신적, 정신적인 세계, 신성의 세계로부터 온 것입니다. 우리가 살면서 ‘나’라고 지칭하는 대상은 태어날 때의 ‘나’와 내용상 변화를 겪은 상태입니다. 엄밀히 보면 태어날 때의 몸(물질)은 0-7세 즈음 영구치가 나오는 시점에는 1g도 남아있지 않고 모두 교체된 상태입니다.

물질이라는 것은 끊임없이 변화, 교체됩니다. 교육이란 나의 중앙을 차지하는 영혼, ‘셀레Seele’라는 부분과 관계합니다. 영혼의 한 부분은 물질의 몸과 연결되어 있고, 다른 한 부분은 정신의 부분과 연결되어 중앙에 위치



합니다. 영혼에서 화살표 하나는 아래에서 위로, 또 하나는 위에서 아래로 갑니다. 그 중간부분이 잘 결합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교육의 과제입니다.

정신 세계에서 유래한 존재인 ‘나’는 개별성을 가진 개별자입니다. 아이의 ‘나라는 아주 작은 존재가 정신 세계에서 내려올 때, 나는 부모의 몸을 통해 어떤 문화권, 어떤 장소에 내려갈지 스스로 선택하고, 그 선택은 자신이 계획한 이상적 삶의 과제를 잘 실현해낼 수 있는지를 고려하여 이루어집니다.

우리 몸인 물질체를 보면 무기질과 겹치는 부분이 있습니다. 물질체 안에 광물계가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림의 오른쪽 아래 부분을 보면 ‘땅\* 흙’이라고 표시했습니다. 몸은 수분도 많이 가지고 있어서 ‘물’이라고 썼습니다. 혈액순환, 체액과 림프액, 위액 같은 것이 우리 몸에서 물의 속성을 가진 부분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몸에는 온기가 있습니다. 이것은 ‘공기’의 속성입니다. 공기는 호흡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말하기도 공기’와 밀접하게 관련된 작업입니다. 또한 ‘불’의 요소는 이들 모두가 작동될 수 있도록 점화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이와 연결하여 우리 몸의 네 가지 구성 요소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신경감각체계는 신진대사 영역과는 달리 가장 확고하게 우리를 구성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우리의 뇌에 산소가 부족해지면 굉장히 빠른 속도

로 신경감각체계의 연결이 일어납니다. 뇌가 죽어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음은 신진대사체계가 있습니다. 이것이 잘 작동하려면 체온과 같은 온기가 필요합니다. 신진대사체계에 의해 모든 것이 우리의 몸 안에 스며들게 됩니다. 우리의 내장기관에 열이 잘 분포되어 있어야 소화흡수가 잘 됩니다. 각 기관은 저마다 적절한 체온이 있습니다.

우리 몸에서 간은 다른 기관과 비교하여 체온이 가장 높은 기관입니다. 그리고 신진대사계의 가장 중요한 역할을 맡고 있습니다. 폐는 공기와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고, 움직이는 물이라는 유동적인 요소는 신장과 연결됩니다.

이 모든 요소가 정신과 신체를 이루는 부분들로, 이것들은 중앙에서 합쳐져 우리의 영혼을 이룹니다. 이런 설명을 바탕으로 기질을 나뉘웁니다. 땅의 요소가 가장 드러나는 것이 우울질입니다. 우울질의 특징은 “이 세상에 일어나는 일들을 내가 직접 체험하리라.”는 것입니다. 우울질을 제대로 이해하려면 우울질의 사람이 겪는 아픔을 가장 잘 이해해 주어야 합니다. 점액질은 물의 요소가 드러나는 것인데, 물은 항상 흔적을 남기는 것이 그 속성입니다. 물은 흐르면서 주변 환경에 적응하면서 영향을 주고 받습니다. 만약 물의 잔잔함을 보고 싶다면 먼 곳으로 올라가 강을 보면 됩니다. 그러면 수면이 잔잔하게 보이지요. 이런 특징을 잘

생각하며 아이를 보세요. 점액질인 아이는 먹는 것을 좋아하며 행동이 느립니다. 바람의 요소가 드러나는 경혈질의 아이는 모든 일에 다 참여하고 즐거워합니다. 울다가도 어떤 대상이 보이면 바로 울음을 그칩니다.

불의 요소를 지닌 담즙질의 아이들은 어려서 많이 읍니다. 잘 관찰해보면, 보통 어린아이들이 많이 우는 것은 담즙질의 기질 때문이라기보다는 뭔가 불편한 것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조심해야 하는 점은, 기질은 만 7세에서 14세 사이에 드러나는 것이어서 영유아 시기에는 두드러지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0-7세에는 앞의 그림에서 보여주듯 정신 세계에서 내려오는 ‘나’가 신체와 잘 연결되는 것이 중심 과제입니다. 이 시기에는 아이의 기질이 밖으로 드러나지 않습니다. 몸이 만들어지는 과정에서 모든 것이 제자리에 자리를 잡게 되면, 만 7세가 지나면서 아이에게서 무엇인가가 드러납니다. 그래서 영유아 시기의 아이들을 두고 기질이라는 교육학적 관점에서 무슨 기질, 무슨 기질로 범주를 정하면 안됩니다. 오히려 영유아 시기에는 불의 요소, 물의 요소, 땅의 요소, 공기의 요소 등 세상의 많은 요소들을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많이 주어야 좋습니다. 그런 현상이 안정감을 줍니다. 그런 체험이 많이 이루어지는 현장에서 아이의 몸이 온전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뒷받침해야 합니다. [...] 

## 태아발달론

엘마르 슈뢰더 (통역 여성훈)  
강의 발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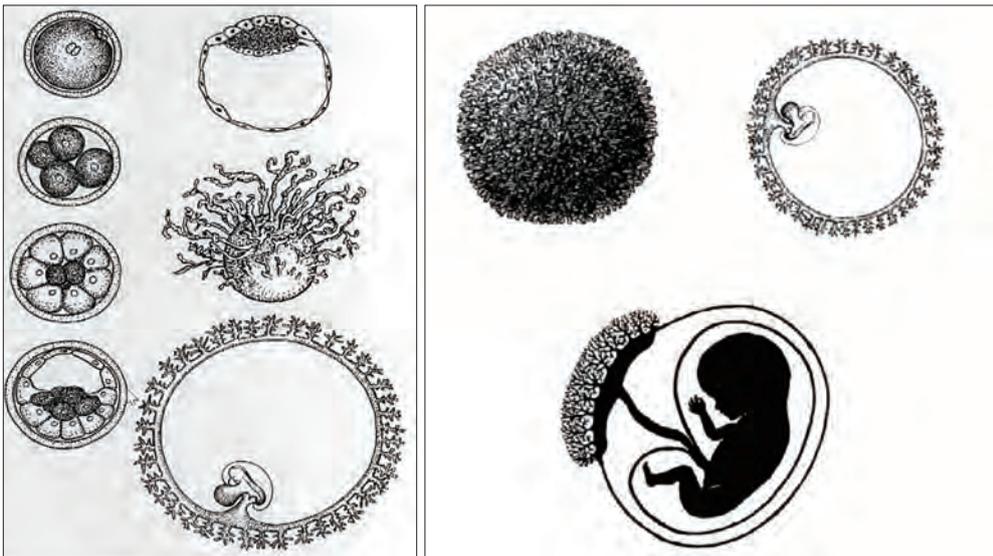
태아에 관한 이야기는 정말 멋지고 아름답지만 한편으로 알기 어려운 이야기이고 비밀스런 부분이다. 태아의 발생이 비밀스럽게 느껴지는 것은 우리의 감각으로는 그것을 직접 확인할 수 없기 때문이다. 단지 보지 않고 우리 감각으로 느낄 수 없으니 추측할 따름이다. 오늘날 발생학이라는 생물학을 통해서 많은 것이 새롭게 밝혀지고 있지만, 그럼에도 대부분 우리의 육안으로는 관찰할 수 없는 내용이다. 태아의 발생 과정이 비밀스럽기도 하지만 놀랍고 아름다운 이유는 태아가 커가는 9개월이라는 기간에 일어나는

많은 것을 우리가 알기 때문이다. 모태에서 자라는 9개월 동안 태아에게는 다른 어떤 기간보다 성장과 변화의 사건들이 많이 일어나고, 이러한 일들은 기적처럼 보인다.

태아 발생의 발달 단계에서 우리는 무엇이 그런 발달에 작용하는지, 어떤 힘이 영향을 미치는지, 그런 발달에 동기가 되어 이끄는 힘이 무엇인지를 살펴 봐야 한다. 우리가 태아 발달에 미치는 힘들, 작용, 과정에 접근하려면 9개월이라는 임신기간을 넘어서 훨씬 더 긴 기간을 살펴보아야 한다. 구체적으로 눈으로 보거나 확인할 수 있는 그 9

개월의 기간 이전에 어떤 일들이 벌어지는지 먼저 이야기해야 하는 것이다. 태아 발달과 관해서는 두 가지 방향에서 이야기를 나눠야 하는데, 첫 번째는 현대의 여러 가지 방법으로 그 9개월에 대해 알아보는 것, 두 번째는 우리의 사고를 동원해서 알아내는 방법이다.

우리 인간의 물질적인 몸의 탄생과 형성의 근거가 태아라면, 한걸음 더 나아가 태아의 발달과 형성에는 그 이전 단계가 있을 것이다. 오늘 강의는 우선 바로 이 태아의 발달, 형성을 가능하게 하는 사전 단계에 관한 부분이다. 이



강의의 대부분은 루돌프 슈타이너가 의 인지학을 토대로 한다. 그리고 오늘날 인간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기관들에 대해 그림을 보고 이야기를 나눌 것이다. 그렇게 하고 나면 우리는 말로 할 수 있는 것을 뛰어넘는 그 이상의 것을 얻게 될 수도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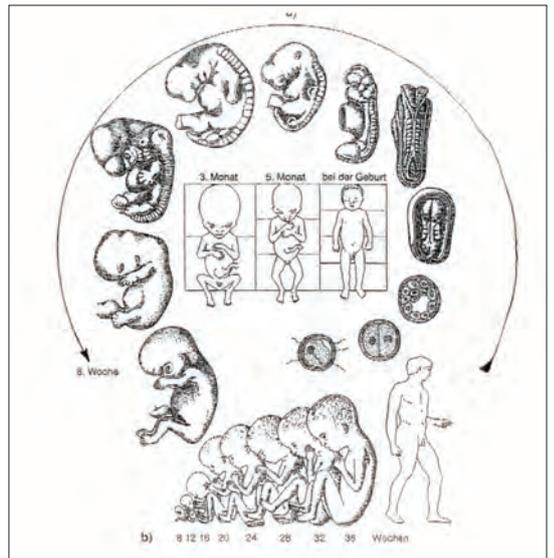
앞의 사진을 보면 자그마한 수정체인 배아가 자기 주변에 어마어마하게 큰 공간을 마련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런데 이 배아가 들어있는 공간이 바깥쪽을 향해서 뭔가를 발산하는 형태를 만들고, 태아가 만들어낸 커다란 그 공간 안에는 다시 두 개의 조그마한 공간이 존재한다. 태아는 탄생 전까지 동굴처럼 생긴 공간을 만들어 지낸다. 그 공간 안에서 이 세상에 나오기 전까지 태아가 얻고 만드는 기관은 탄생 후 만들게 되는 기관보다 훨씬 더 많다. 태아와 함께 이 세상에 태어나지 않는 이 기관들은 정신세계에서 지상세계로 환경이 바뀌는 과도기만을 위한 것이다.

태어날 때 아이는 태아로서 가지고 있던 공간, 즉 자신을 보호하는 그 공간을 버리고 물질세계로 나온다. 그런데 이렇게 자신의 보호막을 벗어버리

고 태어나는 아이는 또 다른 껍질, 보호막을 필요로 한다. 그것은 옷이기도 하고, 따뜻함, 온기, 침대가 그런 역할을 하기도 한다. 태아를 보호하던 그 껍질, 즉 막이 이제는 옷이나 침대처럼 온기를 주는 것들로 대체된다고 말할 수 있다. 또 주변 사람의 관심, 배려, 사랑, 아이를 향한 주목 등이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이다.

슈타이너는 이렇게 이야기한다. 태아는 자신을 둘러싼 기관, 즉 앞의 그림의 오른쪽 커다란 공간을 만들어내고 또 그것과 관련된 많은 기관들을 만들어내는데, 이것들은 아이의 생명

과 관련된 물질적인 것들이다. 그런데 아이는 탄생과 함께 이 기관들을 잃어버린다. 아이가 이 기관들을 만드는 힘은 아이의 자아에서 나온다. 정신 세계의 온전한 삶에서 가져온 것들이 모두 사라진 상태에서 유일하게 남은 자아가 이 시기에 아이를 보호하는 기관들을 만든다. 그리고 이 자아가 만든 기관들은 자아가 탄생 이후에는, 물질적으로 남아있지 않고 정신적으로만 그 아이에게 남아있게 된다. 즉 이 아이가 보호받는 기관은 정신이 만들어낸 물질체인 것이다. 🍷



태아의 성장과 변화

# D코스 학교 교사를 위한 집중코스

코로나19로 인해 2020년 여름 국제아카데미를 대신 하여 '교육예술가 집중코스'가 진행되었습니다. D코스는 학교 교사를 위한 집중코스로 발도르프학교, 대안학교, 혁신학교 교사, 특수교사 및 발도르프 교육에 관심이 있는 분을 대상으로 방역수칙을 준수하여 3일간 진행되었습니다.

기간 2020. 8. 6(목) ~ 8. 8(수) 8:30-18:00 (41명 참석)

장소 한국슈타이너인지학센터 6층 강의실 (마포구 독막로230 우리빌딩6F)

## 인지학의 탄생 - 이성을 넘어, 그리고 신화를 넘어

### 여상훈

슈타이너가 동서양의 신비주의 언어로 말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인지학이라는 “열린 사상”과 그 적대자들.

## 학교 음악 수업

### 이윤옥

초등 1-2학년을 위한 수업

## 아동발달과 교과과정

### 신영주

발도르프 교과목이 아동의 내적 발달을 어떻게 동반하는지 담임 교사의 경험담을 나눈다.

## “삼국유사 속에 현현한 인문정신과 역사의 눈”

### 이양호

발도르프 현장에서 이야기 들려주기와 역사 수업에 활용할 수 있도록 우리 신화들을 깊게 들여다보고 해석하는 시간이다.

## 발도르프 교육에서 인간학

### 엘마르 슈뢰더 / 통역 여상훈

Zoom 라이브 강의

# 발도르프 교육에서 인간학

엘마르 슈뢰더 (통역 여성훈)  
강의 발체

발도르프 학교를 설립하면서 개 최한 교육론 강의에서 루돌프 슈타이너는 ‘호흡’에 관해 교사들에게 다음과 같이 이야기합니다. “아이들은 학교에서 호흡하는 방법을 제대로 배워야 합니다. 교사는 호흡하는 과정이 아이의 신경감각체계 안으로 통합될 수 있도록 도와야 합니다. 호흡을 잘 하면 아이의 신경감각체계가 균형 있게 발달하기 때문입니다. 호흡이 중요한 또 다른 이유는, 호흡을 통해서 아이가 단순히 신체적으로 응축하고 확산하는 것만 배우는 것이 아니라 정신적이고 영혼적인 교감과 교환, 순환을 배우게 되기 때문입니다.”

학교에 오는 아이들 가운데 호흡

을 못하는 아이들은 없지만, 제대로 호흡하지 못하는 경우는 많습니다. 아이들은 교육을 통해 올바르게 호흡하는 방법을 배우게 됩니다. 교사는 아이들이 호흡을 배워나가는 과정을 동행하는 역할을 합니다. 호흡을 제대로 배워나가는 과정에서 교사는 단순히 생리적인 호흡만이 아니고 정신적, 영혼적인 호흡이 이루어지도록 동행해야 합니다.

아래 좌측은 호흡과 관련된 표로, 나이에 따른 호흡량과 호흡수의 변화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가장 왼쪽의 표는 체중(kg)의 변화를 표시합니다. 가운데 표는 어린 아이일수록 필요호흡량(ml)이 적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

습니다. 세 번째 표는 영유아, 아동, 성인의 분당 호흡수를 표시한 것입니다. 어린 아이들은 호흡이 얇고 빠르게 진행되며, 10~15세가 되면 성인의 호흡과 거의 비슷하게 됨을 알 수 있습니다. 호흡에서 중요한 것은 바로 규칙성인데, 어린 아이의 호흡은 약하고 빠르게 혹은 강하고 불규칙하게 진행됩니다.

우리는 흔히 폐가 움직여 산소를 받아들이고 찌꺼기를 내보내는 것을 호흡의 전부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슈타이너는 호흡이라는 리듬이 폐에서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뇌와 연관되어 있다고 설명합니다. 우리 코에는 비강이라고 하는 넓은 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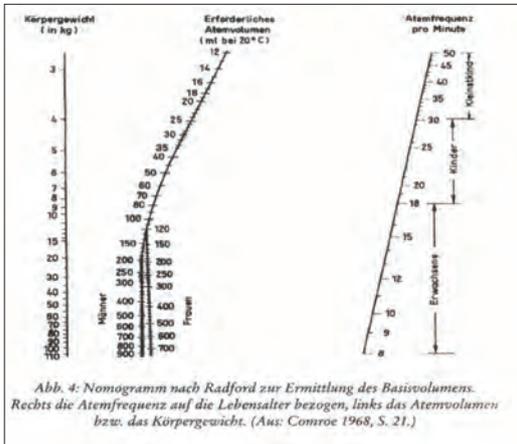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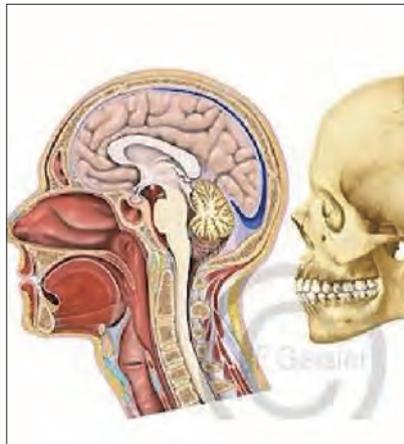


Abb. 4: Nomogramm nach Radford zur Ermittlung des Basisvolumens. Rechts die Atemfrequenz auf die Lebensalter bezogen, links das Atemvolumen bzw. das Körpergewicht. (Aus: Comroe 1968, S. 21.)



공간이 있습니다. 그곳 바로 위 이마 부분에도 빈 공간이 있고, 코 뒤쪽에도 분리된 공간이 있습니다. 뇌 바깥에는 뇌척수액으로 차있는 공간이 있습니다. 뇌척수액은 척추를 통해 몸통의 아래쪽까지 채우게 됩니다. 호흡을 할 때 숨을 들이 마시면 뇌척수액도 특정 방향으로 함께 움직입니다. 숨을 들이마시는 과정에서 뇌척수액에 압력이 가해지면 척추에 있던 뇌척수액이 위로 올라가 뇌에 압력을 가하게 됩니다. 숨을 내쉬면 뇌척수액이 반대로 흘러 뇌에 가해졌던 압력이 풀리게 됩니다. 결국 호흡을 하면 숨을 들이마실 때 긴장하고 내쉴 때 긴장이 풀리는 과정이 되풀이되는 것입니다. 이런 호흡에 따른 혈류량의 변화는 우리의 의식 상태에 영향을 줍니다. 이렇듯 호흡의 리듬이 우리의 의식 상태에 영향을 주는 방식으로 호흡은 우리의 감정적인 부분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달리 말하면, 감정적인 것들이 우리의 호흡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이는 호흡을 통해서 감정들을 표현하기 때문에 이러한 감정들을 제대로 표현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감정의 변화에 따라 호흡이 어떻게 변화하는지를 우측 표를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무감정, 화 / 미움, 슬픔 / 사랑, 성 / 기쁨, 존경 등의 감정 상태에 따라 호흡의 강도, 빈도, 규칙성 등이 다르게 나타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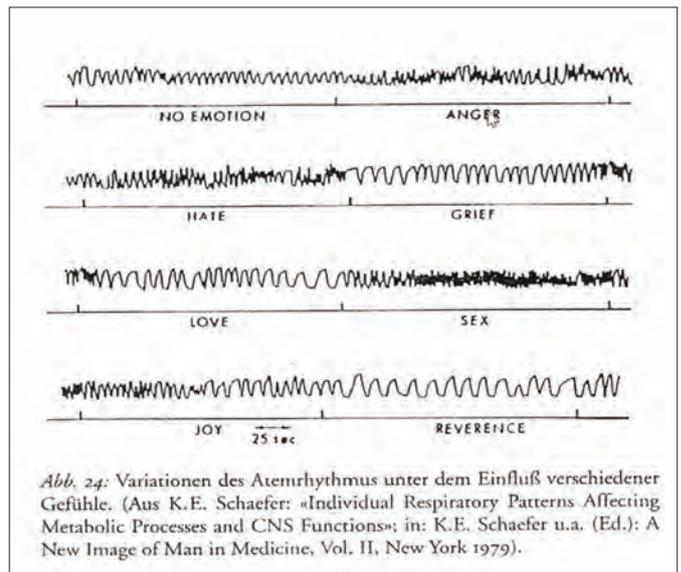
이렇게 호흡에는 사람의 감정적인 상태, 영혼적인 상태가 표현됩니다. 사람의 정신적, 영혼적인 상태가 호흡에 반영되는 것입니다.

교사들은 아이들의 감정이 호흡을 통해서 제대로 표현되도록 도와야 합니다. 결국 아이는 응축과 이완을 통해 충분한 깊이로 호흡하고 적절한 빈도수로 호흡하는 것을 배워야 합니다. 교사는 호흡을 통해서 아이의 감정적이고 영혼적인 상태를 알아차리고, 아이가 나이에 맞는 호흡을 할 수 있도록 보호하고 인도하여야 합니다.

호흡을 가르친다는 것은 아이의 감정적인 상태에 호응하는 것을 뜻합니다. 감정과 연결된 호흡에서 중요한 것은 리듬인데, 예를 들어 수업의 진행 과정에는 긴장하고 집중해야 하는 순간도 있어야 하고 즐겁고 이완

되는 상황도 경험할 수 있어야 합니다. 호흡 또한 아이의 고유성에 따라 다르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아이들에게 호흡을 가르친다는 것은 교사에게는 늘 모험적인 일입니다.

[...] 



## 아동 발달과 교과과정

신영주 (부산발도르프학교 연극교사)  
강사 후기

비텐안넨 발도르프 사범대학에서 담임교사와 연극과목교사 양성과정을 마친 이듬해인 2012년 부산자유발도르프학교의 설립 구성원으로 교직을 시작하여, 8년간 담임을 마치고 현재 연극교사로 재직 중입니다. 그 사이 이 학교는 2017년에 부산사과나무발도르프학교와 통합하여 부산발도르프학교로 변모했습니다.

유학을 떠나기 전 한국에서 알게 된 발도르프 교육은 이상적이었고, 독일에서의 실습은 혼란스러웠습니다. 그래서 발도르프 학교에 근무하며 발도르프 아동발달론과 교과과정의 실효성에 대한 확인을 갈망하게 되었습니다. 함께 지낸 학생들의 발달을 통한 배움도 컸지만, 수업 준비와 수업 실행을 통해 스스로 성장하는 혜택을 받았습니다. 각각의 주기 집중수업과 모든 학년의 마침에는 발도르프 교육에 대한 감탄이 가득 채워졌습니다. ‘아이가 교사를 부른다’는 말이 있습니다. 아이는 교사에게 자신이 나아가고자 하는 길을 끊임없이 제시합니다. 교사는 아이들의 성장을 이끄는 즐거움보다 그들의 삶을 동반하는 행운이 자신에게 주어졌다

는 사실을 깨닫습니다. 가르치는 기술보다 경청하며 기다리는 일, 그리고 배우려는 자세가 필요함을 알게 됩니다.

발도르프 학교에서 이야기는 특별한 의미를 가집니다. 담임교사를 ‘이야기꾼’이라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유아기 때부터 들어오던 이야기는 상상력을 키우고, 상상력은 훗날 사고력이 됩니다. 이 둘은 같은 힘(力)입니다. 사고력은 수학을 잘 하기 위한 것이라기보다 삶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에게 필요합니다. 다양한 이야기의 느낌과 내용은 감성을 자극하며 신체와 사고 영역 곳곳에 스며들어 생명력을 불어 넣습니다. 저학년 아이들은 이야기를 통해 세상을 알아가기 시작합니다. 옛날이야기부터 우화, 성인 이야기, 나아가 전설과 신화를 거치며 점차 실제에 도달하고, 5학년이 되면 고대 문명을 시작으로 역사 수업이 전개됩니다. 판서된 이야기의 내용을 공책에 따라 쓰며 글쓰기를 위한 손의 근육과 글자에 대한 흥미를 키워나갑니다. 움직임으로 배우기 시작한 글자에 문법적 규칙이 있고 말에는 다양한 표현

과 양식이 있음을 차차 배워갑니다. 이야기 속에 등장하던 친숙한 동물과 식물, 광물은 4~6학년이 되면 각각 동물학, 식물학, 광물학이라는 학문적 탐구로 이어집니다. 창조 이야기를 통해 소개되는 숫자들은 놀이를 통해 실제와 연결되고, 셈하기에 이어 분수와 소수, 상임수학과 대수학, 방정식의 실제적 활용으로 이어집니다.

세상을 이루고 있는 외적 형태인 직선과 곡선을 시작으로 대칭과 꼬임, 매듭과 기초기하, 도구기하로 연결되는 형태 그리기 수업은 차츰 수학과 연계되어 상급 12학년에서 분석기하학에 도달합니다. 처음에는 단순한 선묘로 시작된 그리기 수업이 열두 해를 거치며 입체적이고 정밀한 사고 영역에 진입합니다. 학생들은 담임 과정의 고학년(6학년 이후)에는 물리와 화학, 세계지리, 기상학, 천문학, 영양학, 인간학 등을 배우며 세상의 보편적 연계성을 ‘느낌’으로 종합합니다. 과목의 예술과 활동 수업들은 주기집중수업의 내용과 학년별 아동/감각발달을 배경으로 사고와 감성, 의지의 균형 있는 발달을 지원함

니다. 조화로운 움직임 수업을 통한 감성과 의지의 강화는 수공예와 음악, 체육과 체조, 오이리트미(아름다운 리듬), 목공, 원예, 공예, 연극, 미술, 외국어 등의 과목에 모두 연결되어 있습니다.

담임의 주기집중수업에서 사고가 집중적으로 활용되므로, 에포크 수업은 주요수업 혹은 아침공부라고도 불립니다. 이어서 예술과목수업, 오후에는 의지적 과목수업으로 채워지는 것이 발도르프 학교교육의 리듬입니다. 담임의 8년 과정은 발도르프 아동발달주기의 두 번째에 해당됩니다. 이 시기에 아동은 주로 '느낌'을 통해 세상을 경험합니다. 첫 번째 7년주기에도 사고하고 느끼지만, 이때는 거의 '모방'을 통해서만 배움이 일어납니다. 모방의 대상은 주변의 모든 것이며, 그 결과는 신체 내부를 형성하는 데 작용합니다. 장기의 올바른 형태와 기능, 자리잡음은 건강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7년 주기를 맞이하여 사람은 '사고'를 통해 학습합니다. 유연한 사고를 하기 위해서는 가슴의 역할이 필요하며, 사고를 지속하고 정리하기 위해서는 의지적 신체가 바탕이 되어야 합니다. 사람은 광물, 식물, 동물과는 달리 자아를 가지고 있고 사고하는 존재입니다. 사람을 정신적 존재로 바라보고 있는 발도르프 교육에서는 신체와 감성의 건강한 발달이 정신의 탄생을 뒷받침할 때 온전한 자아를

완성할 수 있다고 여깁니다. 즉, 담임의 8년 과정은 이어지는 상급과정 4년을 위한 토대입니다. 상급에는 담임이 아닌 지도교사가 있고, 과목의 전문교사들이 수업을 이끕니다. 꽃을 낸 식물이 열매를 맺고 누에가 나비가 되는 과정이 상급과정입니다. 담임과정에서 학생들이 머리로 이해하는 일은 생각보다 적습니다. 대신, 순간순간 자신을 채웠던 온기가득한 감정들이 상급과정에 진입한 현재의 사고에 풀무질을 합니다.

발도르프 교육은 독일에서 창시된 지 한 세기가 지난 서양식 교육입니다. 하지만 지금 우리 현실에는 다소 부족함이 있으리라 의구심을 안고 지금까지 적용해본 교사인 저는 발도르프교육에서 바라보는 사람의 개별성과 아동 발달의 보편성, 그리고 그에 대한 지혜의 위음이 크게 가치 있음을 확인했습니다. 아이들과 마찬가지로 교사 또한 자연적 존재입니다. 발도르프 교육은 가장 자연스러

운 것을 추구하면서 자연적 존재로서 정신성을 가진 사람이 진화하는 사람과 삶을 깊이 연구합니다. 아이와 마찬가지로 발도르프 교육은 성장하며 변화하겠지만, 사람이 사람이라는 사실은 앞으로도 변하지 않을 것입니다. 발도르프 교육은 지속적인 진화를 이루어야 합니다. 교사들에 의해 끊임없이 개발되어야 합니다. 그럼에도 이 교육이 현재 우리 곁에 있음은 분명 기뻐해도 좋을 사실일 것입니다. 세계와 인류의 역사를 통해 얻은 인간에 대한 지혜(人智學)와 이를 토대로 탄생한 발도르프 교육이 사회와 교육, 개인의 삶에 건강한 미래를 제시하길 소망합니다. 🍀





# 2020 가을 국제세미나

20 인지학 영혼달력

21 감각발달론

## 루시퍼와 아리만의 위험을 넘어

김송미(오이리트미 1기 재학생)  
후기

“인지학 영혼달력”은 루돌프 슈타이너의 명상시 52편으로 이루어진 잠언집이다. 슈타이너는 영혼달력의 머리글에서 한 해의 흐름은 고유한 생명을 담고 있으며 사람의 영혼은 이런 생명을 함께 느낀다고 했다. 사람의 영혼 활동이 한 해의 흐름, 즉 세상의 자연과 시간의 변화와 연결되어 진정한 자기인식을 이룰 수 있다는 것이다.

다니엘 모로 선생님은 심오한 내용을 실제 영혼달력을 예시로 들어 설명해 주셨다. 때로는 직접 작업하신 색상환이나 단순한 그림들을 함께 보여주셔서, 내용을 좀 더 잘 이해할 수 있었다. 수업에서는 한 해의 시작이 4월부터인 이유, 영혼달력의 52개 잠언을 12궁도에 적용할 수 있다는 것, 해당 잠언을 색상환과 계절의 빛에 대입해 보거나 전체 잠언을 돌로 나누거나 넷으로 나누어 음미하는 과정, 각각의 대립 쌍을 함께 읽는 이유, 바로 앞과 바로 뒤의 잠언을 함께 읽었을 때 그 의미를 더 잘 파악할 수 있다는 것, 잠언의 특정 단어들 이 서로 어떻게 연결되는지 등 굉장히 많은 내용을 다루셨다.

그 중에서 나에게 가장 큰 울림을 주었던 부분은 슈타이너가 영혼달력에서 말하고 있는 두 가지의 위험, 즉 루시퍼와 아리만에 대한 해석이었다. 봄부터 여름까지는 우리의 감각이 외부 세계를 향해 열려 있고, 외부 세계의 강한 인상으로 인하여 자

신을 잃어버리려는 강한 힘이 작용한다. 이것은 ‘루시퍼’의 영향인데, 이 힘이 너무 강해질 경우 우리는 아름다움에 취해 사유를 하지 못하게 되며 자신을 잃어버리게 된다. 반대로 가을부터 겨울까지는 감각의 자극은 줄어들고 자기 내면에서의 작업이 이루어진다. 그러나 이 때 자기 자신에 몰두한 나머지 세상에 대한 관심과 사랑이 잃어지면 내면의 죽음과 만나게 되며, 이를 통해 공허를 느끼게 된다. 이렇게 자신 안으로 들어가 갇히면 죽음을 마주하게 되는데, 이 힘이 바로 ‘아리만’의 힘이다. 아리만의 힘은 기계문명의 발달과 연결하여 이해할 수 있으며, 물질에만 갇혀 아리만의 힘에 이끌려가면 영혼 영역이 축소되고 사멸되기 쉽다.

따라서 외부 세계를 향해 열린 감각과 자기 내면에서의 작업 사이에서 균형을 이루어야 하며, 루시퍼와 아리만의 위험 사이에서 물질세계와 정신세계 어느 쪽에도 치우치지 않고 균형 있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결론을 깨닫고는 어떤 사건을 기억해냈다. 그 당시 풀리지 않던 마음의 숙제들이 내가 균형을 잃었기 때문에 온 것임을 깨닫는 순간이었다. 영혼달력 강좌가 끝난 후, 나에게 주어진 숙제들이 내 안에서 하나씩 정리되는 느낌이었다.

당시의 노트를 살펴보니, “지금은 ‘의식혼’의 시대이므로 의지의 힘을 발휘하여

내면의 결실을 추구하는 것이 과제”라고 적힌 부분에 여러 번 강조 표시를 해 두었다. 글을 맺는 지금 나의 내면에서 익어가고 있는 열매는 어떤 종류의 열매인지, 따지막에 탐스러운 결실을 얻게 될 것인지, 다시 한 번 돌아보게 된다. 🍎

# 감각발달론 - 후기

진혜정 (서초구립 포레스타6단지어린이집 교사)  
후기

“영아시기부터 ‘듣고’ ‘지각’하며 주변 환경에서 언어 감각을 습득하게 된다.”라는 아우어 선생님의 강의 말씀이 마음에 새기고 다음 날 아침 어린이집에서 제일 어린 만 0세반 교실로 아이들을 만나러 갔다. 아이 이름, 선생님 이름을 알고 “00이가 왔네~. 안녕하세요 인사할까?” 하면 손도 흔들어주고, “우리 00 선생님한테 가방 주러 갈까~?” 하면 알아듣고 부지런히 가서 고사리 손으로 전해주고 돌아서서 웃는 아이들이다. 이제 막 등원한 영아와 눈맞춤을 하며, “잘 자고 일어나서 세수도 잘 하고, 아침밥도 잘 먹고~, 사랑 반에 왔어요~. 참 잘했어요.” 하고 인사한다. 겉옷 벗기를 함께 하며, “00이 외투를 벗겨줄래~. 팔을 들어 줄래~? 이쪽 팔도 들어 줄래~?” 하면 알아듣고 나를 도와준다. “이번에는 양말을 벗을까~?” 뒤꿈치를 조금 내려주며 손바닥을 내밀어 양말을 달라고 요구해본다. 아이는 양말 코를 당겨서 벗은 양말을 내 손바닥 위에 올려놓으며 눈맞춤을 한다. “이렇게요!”라는 의미를 가득 담아서. 최근에는 “엄마~, 아빠~!”라는 단어를 표현하는 아이들의 말소리가

들리고 있다. 너무나 사랑스런 아이들이다.

<12감각>이란 책을 처음 접하고 놀라움과 호기심으로 펼쳐 보았다. ‘5감각’ 말고 무엇이 더 있다는 것일까? 목차를 보고는 다시 한 번 놀랐다. 그리고 루돌프 슈타이너라는 인물이 펼치는 ‘감각’에 대한 깊은 지식이 경이로울 뿐이었다. “감각기관은 인간이 세상에 태어나 처음으로 외부 세계를 경험하는 도구이며 개별적인 감각기관이 하나하나 분리되어 이해되는 것이 아니며, 전체가 하나의 통일을 이루는 구성체라는 것을 인식하게 될 것이다.”(<12감각>, 14p~15p)라는 표현이 인상 깊게 남는 문장이었다.

아우어 선생님의 말씀 중에 “(영유아 현장에서) 언어를 배운다는 것은 보이는 언어가 중요하다. 교육자는 주목해야 한다.”라는 가르침이 있었다. ‘현장에서 매일 만나는 아이들에게 어떤 세상을 보게 할 것인가?’ 하고 생각하게 된다. 아이는 눈으로 보는 시각각을 통하여 자아감각을 만들어 나간다고 했다. “너는 이 세상에서 너무나 소중한 사랑스러운 아이

란다.”라는 나의 눈빛에, 말투에, 손길에 담긴 메시지를 모든 감각을 통하여 보고 느끼며 아이는 ‘자아감각’을 키워나간다는 것이다.

감각기관은 건강하지만 주변 환경에 감각과 연결된 환경이 없었기 때문에 감각이 발달할 수 없었던 “방에 갇혀 지냈던 아이”의 사례는 언어를, 생각을 통해서 감각 발달이 서로 연결되고 자극 받으며 작용한다는 점을 충분히 이해하게 해주었다. 그리고 무엇보다 영유아와 함께하는 나의 삶을 돌아보게 된, 때로는 현장을 내려놓으려던 공허한 마음을 사랑으로 채우게 한 감사한 시간이었다. 코로나 시대에 이런 귀한 수업을 줌을 통해서라도 들을 수 있는 기회를 준 인지학센터에도 감사드린다. 🍀



# 2020-2021

## 교사 아카데미

- 23 발도르프 영유아 교육예술가 양성과정
- 28 발도르프학교 담임교사 양성과정
- 31 발도르프학교 수공예교사 양성과정
- 37 오이리트미 전문 교사 양성과정

# 발도르프 영유아 교육예술가 양성과정

2003년 여름 1기를 시작으로 2019년 여름에는 10기 과정이 시작되었습니다. 영유아(0-7세)의 본질과 발달을 새롭게 이해하고 특수아동을 포함한 유아기의 발달 문제에 근본적으로 접근할 수 있도록 교사의 현장 능력과 내적 역량을 강화하는 데 역점을 둔 과정입니다. 총 6학기로 진행되는 본 과정을 충실히 이수하여 모든 필수 학점을 포함해 900학점을 이수하면, 발도르프 영유아교사 자격이 부여됩니다. 2021년 겨울 아카데미는 10기의 세 번째 학기였습니다.

기간 2021. 1. 6(수) ~ 1. 8(수) 9:00-18:30 (53명 참석)

장소 온라인 (Zoom Live 강의)

## 교수방법론

볼프강 아우어 / 통역 이정희

취학연령 vs 취학성숙

## 이론

김훈태

새로운 사회상을 찾아서

## 음악

이윤옥

계절노래(겨울): 돌림노래, 간단한 2성부 노래

## 색지공예

손석심

아름다운 빛을 경험할 수 있는 창문 장식: 겨울과 봄

## 취학연령 & 취학성숙

강사 볼프강 아우어 (통역 이정희)

### 강의 발췌

아이의 발달을 존중하려면 그 아이가 어느 단계에 와 있는지를 관찰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아이를 관찰해보면 아이들은 '나'의 존재를 의식한다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발도르프 교육의 토대를 이루는 4구성체를 제대로 이해하면 아이의 발달 지점을 정확히 읽어낼 수 있습니다. 4구성체는 아이가 태어나면서 이미 가지고 있고, 7년마다 발달의 중심이 4구성체와 관련하여 달라집니다. 태어남과 동시에 이미 존재하는 네 가지 구성체가 각각 어느 지점에서 역점을 두고 발달하는지를 충분히 알고 있으면 교사와 학부모는 아이를 진정으로 도울 수 있습니다.

물질체는 탄생 전과 탄생 이후에 발달하는 부분이 다릅니다. 물질체의 발달은 탄생 이전에 태아로서 어머니의 태중에서 완벽한 보호를 받으면서 이루어집니다. 태아는 아주 작은 물질체로서, 아직 완전하게 발달한 상태가 아닙니다. 태중의 태아를 살펴보면 모든 생리작용이 태반에 의해 이루어집니다. 태반을 통해 영양분을 취하고 심장도 모체와 연결되어 있고 호흡조차 온전히 의존적입니다

다. 하지만 이런 생명 활동은 탄생 직후 달라집니다. 신생아가 모든 것을 독립적으로 할 수 있도록 물질체가 성숙됩니다. 다시 말해 모체 안에서 태아의 성숙은 탄생 직후 이루어지는 움직임들이 가능하도록 뼈가 구성되고, 모든 내장기관을 포함하여 사람을 구성하는 모든 것들이 탄생 순간 독립적으로 존재할 수 있도록 성숙해갑니다. 탄생과 함께 아이의 심장은 스스로 뛰고 폐는 스스로 호흡을 할 수 있어야 하고 음식도 모유를 통해서 스스로 흡수할 수 있어야 하고 혈액순환을 포함한 모든 것을 자력으로 감당해야 합니다. 이런 이유에서 신생아는 생후 6개월 동안 반사운동에 의존합니다. 빨기 반사의 경우 아이의 입술에 무엇인가를 대면 저절로 빨지만, 6개월 이후부터는 자기 스스로 느껴서 빨게 됩니다. 아이의 손도 가만히 들여다보면, 신생아는 대상물을 아무지게 잡을 수 있는 상태가 아니지만, 몇 달이 지나면 손의 움직임도 성숙하여 대상물을 잡을 수 있습니다. 언어 발달도 처음에는 언어라고 할 수 없는 '울음'으로 모든 것을 표현하다가, 모방 하면서 언어를 습

득해 나갑니다. 이처럼 아이의 물질체가 발달하는 과정에서 음식을 취하는 것, 손동작이 여물어갑니다. 영아는 생후 1년간, 2년간, 3년간의 발달 과정을 거치면서 '서기'와 '말하기', 그리고 '생각하기'를 할 수 있게 됩니다. [...]

태아기 발달에서 아기는 완벽한 보호막에 감싸여 있습니다. 아기의 탄생은 태중에서의 완벽한 보호에서 벗어나 스스로 발달해 나가야 합니다. 탄생 이후에도 계속 보호해 준다면 이것은 좋은 일이 아닙니다. 넘어지면 스스로 일어날 수 있어야 하듯 신생아의 물질체는 스스로 발달합니다. 탄생 이후 아기는 주변에 있는 성인들의 모든 행위를 모방합니다. 이렇게 아이는 스스로 움직이며 세상을 알아가게 됩니다. 탄생 이후 아이는 스스로 신체 발달을 성취해 나갑니다. 그런데 주변을 관찰해보면 많은 성인이 아이를 계속해서 보호하고 있습니다. 예컨대 만 6세가 된 아이에게 무거운 것을 전혀 들게 하지 않습니다. 아이 대신 어른이 모든 것을 해주는 것은 아이의 능력 발달을 어른이 빼앗는 것임을 꼭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아이의 몸, 물질체의 발달은 스스로 발달시켜 나가는 것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신체인 물질체는 아주 세밀한 구석까지 형성됩니다. 그 형성이 미흡하게 이루어지면 발달에 어려움이 생깁니다. 즉 신체 조직이 스스로 발달해 나갈 수 있도록 해야 하는데, 두뇌 역시 물질체의 일부로서 아이 스스로가 두뇌 발달을 이룹니다. 오늘날 우리는 뇌과학을 통해 압니다. 아이가 손발을 움직일 때 뇌 신경이 발달한다는 것을 말입니다. 만 6, 7세경의 아이를 보면 신체 발달이 얼마나 잘 되어 있는지 쉽게 알 수 있습니다. 신체 발달을 잘 이룬 아이는 이제 자신이 무언가를 스스로 할 수 있음을 압니다. 우리가 이렇게 물질체의 발달을 상세하게 이야기하는 이유는 다음 구성체인 생명체의 발달을 이해하기 위해서입니다. 물질체에 탄생 전과 후의 시간적 경계가 있듯이, 태어난 뒤 발달의 흐름은 이전과는 다르게 나타납니다. 아기가 태증을 벗어나면 물질체인 신체는 탄생했지만, 생명체는 아직도 보호막에 갇혀있는 상태입니다. 만 6, 7세경에 도달하면

그제야 에테르체가 보호막에서 빠져 나와 탄생하는 것입니다. 아기에겐 태중이 물질체의 성숙 과정을 위한 울타리가 되어준 것처럼, 에테르체가 스스로 독립해서 활동해 나갈 수 있도록 온전한 보호막이 있어야 만 6~7세 이후의 에테르체의 탄생이 보장됩니다. 이렇게 탄생한 생명체(=에테르체)는 끊임없이 순환과정을 반복합니다. 그런 순환과정은 심장 박동처럼 늘 일어납니다. 이렇게 생명체가 제대로 작동할 수 있으려면 생후 6~7년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

그렇다면 주변의 성인이 보호막이 된다는 것은 무엇을 뜻할까요? 만 6, 7세까지 생명체의 보호막은 무엇일까요? 보호막을 어떻게 만들어 주어야 할까요? 여기서 중요한 부분은 일상생활의 반복과 어른의 생활 리듬이 규칙적이어야 합니다. 그래야 아이는 생활 규칙을 배웁니다. 식사, 수면, 일상생활의 규칙성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만 6세까지 현장 교사나 가정의 어른이 아이들과 함께 규칙적인 생활을 영위할 때 아이의 에테르체가 강화됩니다. 만 6, 7세가 되면 아이 혼자 먹기와 잠자기를 잘 할 수

있게 됩니다. 반복을 통해서 에테르체가 강화됩니다. 에테르체의 강화, 생활 속의 반복이 중요한 이유는 모든 생명 과정에는 반복의 리듬이 들어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아이의 생활 속에 들어 있는 리듬을 잘 이해해야 합니다. 생활 흐름 속에서 밖을 향해, 즉 자연과 바깥 놀이를 통해 에너지를 발산하고, 그것과 같은 비중으로 교사를 향하여 다시 내면으로 들어옵니다. 즉 어른을 중심으로 집중하고 또 아이 스스로가 외부를 향해 자신을 발산합니다. 요컨대 집중과 이완, 날숨과 들숨의 원리로 아이의 하루 생활이 리듬적으로 이루어진다면 생명체가 강화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



## 이야기 들려주기 - 동화

마리루이제 콤파니 (통역 이정희)

### 강의 발췌

이번 세미나에서는 동화가 아이들의 내면에서 어떻게 작용하는지,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중점적으로 다룹니다. 우선 우리는 “동화”를 개념적으로 구분해서 전래동화와 창작동화로 나누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우리가 잘 아는 안데르센 동화는 창작동화입니다. 발도르프 유아 현장에서 들려주는 동화는 전래동화를 말합니다. 독일 현장에서 들려주는 전래동화는 그림 형제가 수집한 모음집에 들어 있는 것들입니다. 유아반과 다르게 만 3세 미만의 영아현장에서는 동화를 들려주지 않습니다. 어린아이에게는 리듬을 반복하는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전래동화라고 하면 누군가 전달해준 이야기를 말합니다. 그래서 “옛날 옛적에...” 이렇게 시작합니다. 또는 “옛날에 왕과 왕비가 살았는데... 오랫동안 아기를 기다리고 있었습시다. 그런데 어느 날 아기가 생겼습시다...” 이렇게 이야기가 시작되기도 합니다. 우리가 이런 이야기를 듣게 되면 즉흥적으로 떠오르는 어떤 그림(상)이 있을 겁니다. 여러분도 이런 동화를 들을 때 어떤 감정이 생

는지 스스로 질문해볼 수 있습니다. 동화를 귀담아듣게 되면 내면에 어떤 판타지(상)가 떠오릅니다.

그런데 어른들은 동화란 환상적인 줄거리를 담고 있는 황당한 이야기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아이에게 동화를 들려주면 좋은 영향을 줄 수 없습니다. 다시 말해, 아이들 내면에서 떠오르는 감정이 선생님의 감정과 일치해야 하므로, 여러분 스스로가 전래동화에 대한 이해와 그 동화에 대한 감정이 무르익어야 합니다. 전래동화에는 늘 전환, 반전이 들어있습니다. 동화의 주인공은 항상 어떤 위기를 만나고 이것을 극복합니다, 그리고 그런 전환점에서 새로운 상황이 전개됩니다. 이야기 전개에서 그런 위기의 전환점은 새로운 출발점이 됩니다. 이는 우리 삶의 전개에서도 아주 중요한 의미를 지닙니다. [...]

루돌프 슈타이너는 이렇게 설명합니다. “인류사의 발달에 담긴 커다란 지혜가 전래동화 안에 녹아 있다. 동화를 통해 우리는 인류사에 남겨진 지혜의 흔적을 한 조각씩 확인할 수 있다.” 슈타이너는 동화를 음식과 연

결해서 사람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비유적으로 설명합니다. 전래동화는 감각적으로 작용하며 내면적으로 깊은 영향을 미친다고 말합니다. 우리가 음식을 맛있게 먹으면 그 맛을 기억합니다. 음식물 섭취는 한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반복해서 이루어집니다. 마찬가지로 전래동화도 한번 듣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음식물처럼 여러 번 들어야 제맛을 알게 됩니다. [...]

사람들은 왜 동화 듣기를 좋아할까요? 사람의 영혼은 그림(像)에 대한 욕구를 가지고 있습니다. 사람이 지닌 상에 대한 배고픔을 잘 활용하여 영화나 미디어, 영상물이 발달한 것입니다. 이런 근본 욕구 속에서 영혼의 배고픔을 달래기 위해 우리는 영화, TV, 영상물을 즐겨 봅니다. 현대인이 미디어에 빠져드는 것도 상에 대한 배고픔을 달래기 위한 것입니다. 그런데 아이의 영혼에 들어 있는 상에 대한 배고픔을 달래기 위해 전래동화를 영상물로 보여주는 것과 아이가 전래동화를 직접 들을 때 떠오르는 상은 질적으로 다릅니다.

현장에서 자주 경험합니다. 부모

의 학식이 높은 것과 상관없이 아이들이 TV 또는 유아용 미디어에 강하게 노출된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아이들은 “영혼의 자양분”인 전래동화를 들으면서 내적으로 상을 스스로 만들어내지 못하는 안타까운 상태에 있으니 안타깝습니다. [...]

혼합연령 현장에서 1년을 계획할 때는 먼저 “리듬적인 이야기”부터 도입합니다. 그리고 리듬적인 이야기에서 동화로 바꿀 때 전래동화 중에서 가능한 짧은 동화를 계절을 고려하여 선정합니다. 동화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그것을 어떻게 구사하는지도 중요합니다. 이야기를 들려주려면 전달자 관점에서 그 내용을 잘 알고 있어야 합니다. “리듬적인 이야기”는 짧아서 외워서 들려주어야 합니다. 가장 좋은 것은 암송해서 자연스럽게 이야기를 들려주는 것입니다. 교사가 자연스럽게 들려주면 아이들과의 연결고리가 단단해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야 아이들과 직접 만날 수 있습니다. 이때 유념해야 할 것은 드라마틱하게 들려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조용한 어조로 서사적으로, 그러나 지루하지 않게 들려주어

야 합니다. 이야기 속도가 너무 느려서도 안 되고, 너무 빨라도 안됩니다. 들려주는 어른 관점에서 서사적인 구연은 생동감을 지녀야 합니다. [...]

아이들이 동화를 들으면 어떤 능력이 길러질까요?

경청하는 능력은 청각각 발달과 직접 연결됩니다. 그리고 언어가 확장됩니다. 동화의 표현법, 또는 어법은 일상적인 말보다 더 가꾸어진 표현을 사용합니다. 그래서 어휘가 확

장되므로 언어 감각을 촉진합니다. 나아가 아이에게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감각들이 형성됩니다. 아이들은 동화를 들으면서 상이 떠오르고 판타지가 활성화되기 때문에 상상력이 높아집니다. 그에 더하여 아이들의 자아의식이 강화되고 집중력, 주의력이 높아집니다. 결국 동화 듣기를 통해 감각의 총체적인 발달, 유아기의 기본 능력이 뒷받침됩니다. 🍀



# 발도르프학교 담임교사 양성과정

발도르프학교 담임교사 양성과정은 2012년 독일 비텐안넨 발도르프 사범대학과 협력하여 1기가 출발하였고, 2016년부터는 슈투트가르트 발도르프 사범대학과의 협력으로 2기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양성과정의 8학기 과정을 모두 마친 후에는 디플롬을 획득할 수 있는 과정과 연계됩니다. 발도르프 학교뿐 아니라 대안학교와 공교육의 혁신미래교육을 지향하는 교사들이 교육의 본질과 인간에 대한 이해를 넓히고 아동 발달(만 7-14세)에 맞는 교수방법론을 통해 현장 수업 능력과 내적 역량을 강화하는 교육과정입니다. 2021년 겨울 아카데미는 3기의 첫 번째 학기였습니다.

기간 2021. 1. 27(수) ~ 1. 29(금) 13:30-18:30 (60명 참석)

장소 온라인 (Zoom Live 강의)

## 교육학

볼프강 아우어 / 통역 이정희

슈타이너의 아동발달론

## 교수방법론 I

송민욱

수학과 예술

## 교수방법론 II

하주현

도움수업 <Extra Lesson>

## 슈타이너의 아동발달론 : 교사의 역할

볼프강 아우어 (통역 이정희)  
강의 발췌

저는 30년간 발도르프 학교에서 교사로 재직하였습니다.

이번 교육의 주제는 “학교에서 교사의 역할”입니다. 어른의 역할은 저학년, 고학년을 분리해서 바라볼 수 없습니다. 발도르프 학교 설립 전에도 취학연령은 있었습니다. 이갈이가 시작되거나 팔다리가 성장하면 학교 갈 때가 되었다고 하였습니다. 요즘은 이 두 가지 조건을 다 채워도 학습에서 어려움을 보입니다. 현대 아동들은 공부에 집중하지 못하고, 생각나는 대로 행동하고, 수업 중에 딴짓하는 모습을 자주 보입니다. 또는 다른 아이들이 노는 데 마구 끼어들며 방해합니다. 이런 현상들은 아동들이 학교에 들어왔지만 많은 경우 아직 제대로 성숙하지 않은 상태임을 보여준다는 것에 공감하실 겁니다.

이른바 “움직이는 교실”은 20년 전 북부 독일에서 창안된 모델이었습니다(사실은 아우어 선생님을 중심으로 개발됨). 지금은 이 모델이 독일 전체에 퍼져있고, 세계의 많은 발도르프 학교에서 움직이는 교실을 실행하고 있습니다. 물론 한국 발도르프 학교에서도 적용하고 있습니다.

취학연령이 되었어도 학습능력이 준비되어 있지 않은 아이들이 많은 것은 시대적 현상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교사와 학교는 새로운 교육환경을 개발하여 상황에 따라 아이들을 돌봐야 합니다. 영유아

기는 외적인 움직임이 많았다면, 만 6, 7세부터는 외적인 움직임뿐 아니라 내면에서도 움직임이 일어납니다. 이처럼 외적 움직임과 내적 움직임으로 나누어 볼 때, 움직임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어른의 뒷받침이 필요합니다. 움직이는 교실에는 책상이 없습니다. 그 대신 등받이 없는 긴 벤치와 같은 의자를 놓습니다. 두꺼운 방석에 앉아 이 벤치를 책상으로 사용합니다. 아동들은 일반 의자에 앉는 것보다 더 편안하게 좌식으로 방석 위에 앉습니다. 이런 시설은 장점이 많습니다. 우선 책상 겸 의자로 사용하는 이 가구를 벽 쪽으로 밀어 쌓으면 교실 가운데 공간이 생기므로, 아동들은 여러 가지 활동을 할 수 있습니다. 아이들이 앉는 대신 원으로서서 활동하는 등 수업의 다양성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이때 어른은 아이들의 움직임을 잘 이끌어 주어야 합니다. 예를 들면, 균형 잡기 활동은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긴 벤치 의자는 책상이 되기도 하지만 그것을 뒤집으면 평형대가 됩니다. 그 사이에 방석을 끼우면 균형 감각을 자극하는 움직임을 할 수 있습니다. 대부분 불안하고 차별하지 않은 아이들은 균형 감각 발달이 결핍된 경우가 많습니다. 그 때문에 교실에서 이런 활동이 이루어지면 균형 감각 발달에 도움을 줍니다. 그다음 중요한 것은 촉각입니다. 방석을 끼워서 미끄러움을 타

는 등 다양한 활동으로 움직임 감각과 동시에 촉각각을 자극하고 촉진합니다. 이런 활동들이 아이들 내면에 차분함을 유지해주는 이유는 아이에게 외적 균형각각을 길러 줌으로서 내적인 균형(차분함)이 잡히기 때문입니다. 움직이는 교실에서 일어나는 활동은 아이들의 기초능력을 쌓는 데 도움을 줍니다. 움직이는 교실은 발도르프 교육의 본질과 통합니다. 아동에게 필요한 부분을 뒷받침하고, 아이가 원하는 것에 호응하는 것입니다. 학교는 아동이 원하는 방향을 지향해야 합니다. 이것이 발도르프 교육의 특성입니다.

본론으로 들어가서 만 7세에서 14세까지의 발달까지 초등 1학년 교사의 역할을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은 인간 4구성체를 이미 알고 있었지요. 첫 번째, 물질체는 우리의 몸을 구성합니다. 두 번째는 에테르체 즉 생명체는 생명 과정을 이끌어가는 힘입니다. 세 번째 아스트랄체, 감정체는 감정 체계를 말하는 것으로, 우리의 욕구나 충동, 감정, 느낌 등을 관장합니다. 네 번째는 자아, 나, 자의식으로 우리의 의식을 끌어가는 주체입니다.

슈타이너는 4구성체의 탄생이 한꺼번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순차적 과정을 강조했습니다. “물질체가 탄생할 때 에테르체는 보호막에 들어있고, 그다음 에테르체가 탄생할 때는 아스트랄체가 보호막

에 감싸여 있다.”라고 설명합니다.

초등학교에 입학하면 두 번째 7년 주기가 펼쳐집니다. 그렇다면 학교에 들어온 아이들은 인간 4구성체 중에서 어떤 부분이 발달하게 될까요. 만 7세는 인간의 두 번째 구성요소인 생명체(에테르체)가 탄생하는 시기입니다. 영유아 시기에 보호막에 싸여있던 에테르체가 독립적으로 활동하기 시작합니다. 이것을 교육적으로 활용해야 합니다. 학교에 입학한 아이들은 내면에서 선생님과 교류하고 싶어 합니다. 성인과 내가 연결되길 원하므로 선생님에게 마음을 엽니다. 이것을 통해 감정 영역이 발달하기 시작합니다. 어른에게서 “긍정적인 권위”를 원합니다. 발도르프 교육에서 말하는 “긍정적인 권위”란 아이 내면에서 자발적으로 일어나는 감정인 존경심을 뜻합니다. 담임교사가 만 7~14세 학생들에게 식물학과 동물학을 전달하거나 수업할 때는 지적인 깨우침을 목표로 설명하지 않습니다. 감정에 와 닿도록 상으로, 상징적, 동화적, 비유적으로 식물과 동물을 이야기합니다. 중요한 것은 교사가 비유와 상징을 통해 이야기를 상황에 맞게 직접 써서 전달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교사가 교수 방법론적으로 아이들의 기본 본성인 관심과 호기심을 끌어내고 자극하려면 수업에서 이야기의 완급을 조절해야 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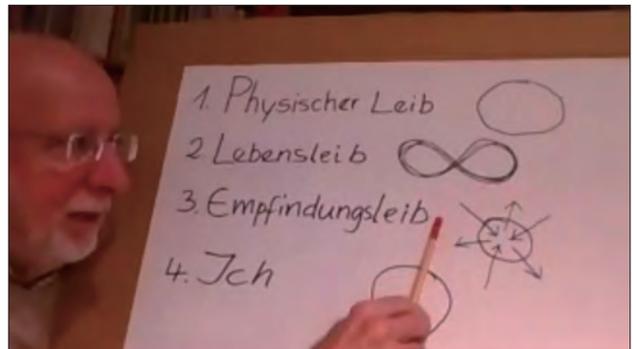
만 14세가 되면 아이의 감정체(아스트랄체)는 보호막에서 탄생합니다. 상급학년으로 올라가는 이 시기에 아직 나(자아)는 여전히 보호막에 싸여 있습니다. 감정체가 탄생한다는 것은 청소년기의 아이들이 감정 영역에서 독립적으로 느끼고 활동하게 됨을 말합니다. 아동기와 청소년기

에 감정체의 발달이 잘 이루어지면 지성의 힘에 해당하는 판단력, 사고, 생각하기로 나갈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된 셈입니다. 상급 교사는 청소년들의 자아가 탄생 과정에 있어서 그들의 비판이나 판단이 불완전하다는 것을 압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이끌어 주어야 합니다. 또한, 상급 교사는 자기 전공 분야에 대해 확실한 조예가 있어야 합니다. 학생들의 비판력을 고려하여 전공에 더 능숙하려면 자기 분야를 깊이 탐구해야 합니다. 그리고 교사 스스로 예술 영역을 잘 가꾸는 것도 중요합니다.

루돌프 슈타이너는 교사의 세 가지의 능력을 강조합니다.

교사는 세상에 대한 포괄적인 앎을 토대로 대상을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어야 하며, 세상일에 폭넓은 관심을 두고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중요한 점은 세상에서의 자기효능감입니다. 즉, 교사가 내가 세

상에서 무언가 의미 있는 활동을 하며 그것이 긍정적으로 작용한다.’라는 생각과 감정을 가지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농업에 대해 알고 농사짓는 일을 체험해 보는 것 등 실용적인 실천이 중요합니다. 바로 이런 세 가지 관점은 교사만이 아니라 상급 학생에게도 중요합니다. 상급 교사는 학생들이 원하면 언제든지 대화의 상대가 되어 주어야 하고, 언제 어떤 요청을 받아도 응할 수 있어야 합니다. 제가 상급 교사로 경험한 바는, 고학년 학생들은 교사를 대할 때 깊은 시선으로 내적 질문을 던진다는 사실입니다. “저 선생님이 말하는 것은 진심일까? 진정성이 있는 이야기일까? [...]”



# 발도르프 학교 수공예교사 양성과정

수공예는 전 학년을 걸쳐 아이들의 건강한 발달을 돕는 발도르프학교의 필수 과목입니다.

발도르프 수공예 교사로서 기본 교육을 필요로 하는 현장의 끊임없는 요청에 따라 독일 슈투트가르트 사범대학과 협력하여 인지학적 아동 발달에 기반한 수공예 기술 뿐 아니라 창의적 예술 감각을 겸비할 수 있는 수공예 전문교육 과정입니다. 총 6학기로 진행되는 본 과정을 충실히 이수하여 모든 필수 학점을 포함해 700학점을 이수하면, 발도르프 학교의 수공예 교사 자격이 부여됩니다.

## [1기 2학기]

2020 여름 발도르프학교 수공예교사 양성과정

기간 2020.8.10.(월)-8.14.(금)13:00-19:00

장소 한국슈타이너인지학센터 6층 강의실/Zoom 라이브 온라인

## [1기 3학기]

2021 겨울 발도르프학교 수공예교사 양성과정

기간 2021.1.20.(수)-1.24.(일)13:00-19:00

장소 Zoom 라이브 온라인

## [1기 2학기]

### 수공예(이론, 실기)

마그리트 뷔글리 뢰쉬케 / 통역 김하진

형태와 기능을 고려한 작업

4~5학년 수 놓기 작업, 첫 맞춤 의류거리

### 예술

#### 손석심

형태그리기

## [1기 3학기]

### 수공예(이론, 실기)

마그리트 뷔글리 뢰쉬케 / 통역 김하진

해당 연령별에 따른 교육방법론

6학년 동물

### 예술

#### 손석심

동물그리기(스토크마 크레용)

### 일반인간학

엘마르 슈뢰더 / 통역 여상훈

## 4학년 수공예 과정

순수함 속에 방향이,  
고요함 속에 강인함이,  
교차 속에 힘이 들어있네.  
-작자 미상

4학년 아동 발달에 맞는 수공예를 위한시라고 할 수 있다.

수공예 수업을 여는 시는 아무거나 사용하지 말고, 아이들의 본질에 합당한, 그 나이에 맞는 시를 골라서 시작 시로 사용하기를 바란다. 가장 좋은 것은 선생님들이 직접 지은 시를 사용하는 것이다. 시를 지을 때 고려해야 하는 것은 가장 아름다운 상을 발견하는 일이다. 예를 들어, 방금 읽은 시에서 아이들은 어떤 상을 만들 수 있을까? 선생님은 여기에서 어떤 목표를 향해 하나의 길을 쫓아나가는 것 같은 상을 받게 된다.

고요함 속에 강한 힘을 받는다. '교차'는 서양 그리스도교 문화권에서 십자가를 의미하는데, 이 십자가를 지닌 예수가 사람들에게 힘을 주는 상을 떠올리게 된다. 십자라는 것은 아주 오래된 원형적인 상징이다. 그래서 아시아 문화권이나 인도 문화권에서도 굉장히 깊은 신화적인 의미

가 있을 것이다. 아이들이 의식적으로 '내가 조용히 해야 하는구나!' 느끼도록 하는 직접적인 의미 말고도 아이들이 무의식적으로 상들을 얻어갈 수 있어야 한다. 이러한 시들을 수업을 위해서 발견할 수 있어야 한다.

『교차』라는 책이 있다. 이 책에는 4, 5학년 교과과정에서 할 수 있는 내용이 풍성하게 담겨 있고 루돌프 슈타이너가 살아 있을 때 했던 작업이 나와 있는데, 이걸 보면서 나는 십자수를 꼭 하지 않아도 되겠다고 생각하게 되었다. 슈타이너의 『예술적인 수공예』라는 책을 보면 어떻게 아이

마그리트 뵈글리 뢰쉬케 (통역 김하진)  
강의 발췌

들과 예술적인 색깔 작업을 할 것인가에 관한 이야기가 나와 있다. 이것을 보면서 오래된 작업을 통해서 십자수만 할 것이 아니라 다른 수놓기를 해도 되겠다고 힌트를 얻게 되었다.

우리가 채색작업을 해보면 밝음과 어두움이라는 이원적인 것을 경험을 할 수 있다. 이것은 단지 색깔을 칠하는 작업에서 경험하는 것이 아니라 밝음과 어두움, 가벼움과 무거움을 균형 있고 아름답게 배치하는 미적 감각을 아이들에게 키워주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이것은 아이들과



도 할 수 있는 작업인데, 채색한 천이 마르면 한쪽에 전시해 놓고 가벼움과 무거움을 균형감 있게 표현했는지, 가벼움과 무거움 중 어느 쪽이 지배적인지를 살펴볼 수 있다.

그리고 이것은 수공예 작업의 요소에서도 구현해 볼 수 있는데, 아이들에게 정확한 규칙성을 제시하여 정확한 작업을 하도록 하는 것이다.

지난 겨울 아카데미 때 작은 주머니를 만들었다. 그때는 마치 산책을 하듯 한 땀 한 땀 수를 놓았다. 하지만 이제는 좀 더 의식적으로 조형을 하며 형태를 구성하는 것이다. 그러나 도안을 그리지 않고 수를 놓도록 한다. 의식적으로 형태를 잡아가지도 굉장히 자유롭게 한다. 규칙성과 자유로움의 균형을 맞추면서 하는 것이다. 그리고 대칭을 이루도록 한다. 대칭은 칸을 세어서 만들지 않고 눈대중으로 만들도록 한다.

이렇게 형태나 디자인을 구성할 때는 이것의 기능이 무엇인지 염두에 두고 작업한다. 이 장식이 이 물건의 용도를 나타내야 하는데, 이것이 가장 어렵다. 예를 들어 필통을 만드는데 연필을 수놓지 않았다. 그럼에도 이것이 어떻게 필통인지 알게 하는가가 어려운 점이다. 예를 들어 꽃을 수놓는데 그 꽃을 가방에 수놓는다면 그것이 목적에 합당하지 않아 유치한 것이 된다는 것이다. '꽃병도 아닌데 여기에 왜 수를 놓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 의미없는 행위이니 그렇다.

이렇게 도입해 가다가 5학년에 십자수를 하게 되는데, 많은 발도르프 학교에서는 4학년 때는 십자수를 해야 하는 것으로 이야기한다. 새틴스티치처럼 직선으로 하는 스티치를 먼저 하고 나중에 십자수를 해보면 이 두 작업의 성질이 서로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을 것이다. 작업하는 가운데 왜 십자수 전에 직선으로 수를 놓는지 이해하리라 생각한다. 많은 학교에서 4학년에는 십자수만 하게 되는데, 한국에서도 그런 경우가 많으리라는 생각이 든다.

십자수를 하기 전에 땅기를 하게 된다. 땅기 작업의 교육적 효과는 무엇인가?

교차라는 움직임이 아이들의 발달에 도움이 된다면, 수를 놓는 것은 작은 움직임이지만 땅기는 큰 움직임

으로 교차를 경험하도록 하는 작업이다. 그리고 땅기를 할 때는 어떤 형태가 가장 원형에 가까울까? 두 줄을 가지고 땅기를 할 때는 무한대 기호( $\infty$ )를 계속 그리게 된다. 무한대의 가운데 교차하는 부분이 '나'라는 것, '내 자아', '내 중심'이라는 것을 경험하게 된다. 그래서 항상 작업하게 되면 가운데 교차되는 부분을 만나게 된다. 두 팔을 꼬아서 팔짱을 끼었을 때 나는 다른 아무와도 상관하고 싶지 않거나 자신에게 머물고 싶다는 이야기가 된다. 세 번 교차했을 때 매듭이 된다. [...] 🍷



## 마음 속에 전해진 값진 선물 (발도르프 수공예교사 양성과정 2학기를 마치며.....)

김경희(잇다 자유 발도르프 학교 수공예 교사 / 수공예 전문과정 보조강사)

### 후기

학교 수공예 교사로 여섯 번째 해를 맞이하게 되었다. 해마다 처음 수공예를 가르치는 교사로 돌아가 뭔가 다시 찾고 세워야 하는 교육적인 고민 속에서 아이들을 만나고 있는 나 자신을 발견한다. '그동안 아이들과 해 왔던 수공예 수업내용들은 온전히 잘 전달되고 있고, 나는 잘 하고 있는 것일까?' 하는 의문과 교사로서 바로 서고자 하는 욕구는 인지학 센터의 수공예 양성과정을 통해 하나씩 나름의 질서를 찾아가고 있다.

올 한 해도 모두들 어김없이 새로운 도전과 코로나라는 어려운 상황을 만나게 되었다. 다시 새로운 교육 방법과 과정을 고민하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이 펼쳐진 것이다. 수공예 연수야말로 직접 만나서 생생한 움직임의 행위 안에서 전달되어야 하는 배움이기 때문에, 'zoom으로 하는 비대면 수업으로 내용이 제대로 잘 전달될 수 있을까?' 하는 많은 걱정과 함께 2020 여름 아카데미가 시작되었다.

의식이 깨어나는 4학년 시기의 아이들에게 필요한 교육 내용들 속에서 나도 모르게 자리 잡았던 틀("이 시기는 십자수를 해야 한다!")이 깨지는 순간을 가져다준 5학년의 십자수 도입은 흥미로웠고, 다시 한번 나 자신을 비우고 좀 더 유연하고 풍부한 예술적인 작업을 해야겠다는 생각과 함께 아이들을 새롭게 바라보는 계기가

되었다. 그리고 천연 염색으로 물들여 가는 천을 보며, 색들이 주는 편안함과 여유로움이 내 안에 불필요한 편견들을 걷어내어 자연스러움과 함께 자유로움을 얻을 수 있었다. 감각이 살아나는 느낌이었다. 그동안 아이들에게 어쩔 수 없다고 생각하며 주었던 인위적이고 자극적인 색감의 재료들이 미안해졌다. 염색한다는 것은 번거롭고 불편하다는 인식이 깨어지면서, 아이들과도 과정 안에서 얼마든지 시도해볼 만한 가치가 있다는 의지가 생겼다. 이제부터는 현장에서 아이들과 즐겁게 함께 해볼 수 있을 것 같다. 직접 자신만의 느낌으로 물들인 천은 자신만의 영감을 자극하는 데 적절하다는 것을 알았고, 의지를 바로 세우는 수 도입 또한 내 안의 의지를 깨우는 작업이었다.

5학년 과정의 양말 뜨기는 입체적인 모양을 만들어내기 위해 한 코 한 코 공식과 규칙에 따라 선생님의 설명을 빠르게 따라가야 하는 상황이었다. 처음 대하는 연수생들에게는 힘들어 보이기도 했지만, 서로 거리를 두어야 하는 코로나의 어려운 상황에서도 서로 도움을 주고받으며 함께 소통하며 배우는 시간이 되었다. 시간이 흐르면서 점점 같은 조원의 연수생들끼리 친해지고 관계가 돈독해지는 가운데 연수는 더욱더 따뜻한 시간으로 채워지고 있지만, 코로나라는 예기치 않은 상황은 친밀

한 만남과 관계 형성을 어렵게 하고 있어 안타까움이 남는다.

zoom으로 하는 수업이 자칫 이론화되고 생생하지 못할 거라는 예상과는 달리, 정성 어린 수업 준비와 관심으로 이끌어주시는 퇴쉬케 선생님의 열정은 코로나로 힘들고 지친 분위기를 생동감 넘치는 수업으로 바꾸었다. 하나라도 더 가르쳐 주시려는 선생님의 모습 또한 좋은 본보기가 되었다. 또한 사전에 퇴쉬케 선생님과 많은 의사소통을 통해 수업 내용의 의미를 먼저 숙지하고 준비해 주신 김하진 선생님 덕분에 또 하나의 호홉처럼 편안한 통역이 이루어져, 마치 옆에서 퇴쉬케 선생님이 함께한 듯 수업 전달이 잘 되었던 것 같다. 자료 준비에 정성을 다한 한은숙 선생님과 zoom 수업을 기술적으로 준비하느라 애써 주신 인지학센터의 사무국 선생님들의 보이지 않는 수고로움이 수공예를 배우고자 하는 우리 연수생들의 마음 속에 값진 선물을 전해 주었다. 🍷



## 동물 만들기

마그리트 뷔글리 뢰쉬케(통역 김하진)  
강의 발췌

우리 주제는 6학년 동물 바느질하기이다. 선생님께서는 대면으로 했던 것처럼 모든 것을 함께 해나가는 식으로 계획을 하였다.

5학년 아이들은 학교에서 그리스 신화에 대해서 듣게 된다. 그리스 시대를 대표하는 것은 미적인 이상이다. 로마시대는 좀 더 공격적인 것을 나타냈다면, 그리스 시대는 미적인 이상을 표현했다고 볼 수 있다. 만 12세의 5학년 아이들은 사지나 움직임 같은 것이 매우 균형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5학년 아이들은 정서적인 것을 많이 느낀다. 하지만 그것이 6학년이 되면 사라진다. 또한 자기만의 감정의 세계가 생기기 시작한다. 인지학에서 말하는 아스트랄체가 발달하기 시작하는 것이다. 이는 사춘기의 만 14세까지 지속되는 변화이다. 신체(사지)는 팔다리가 길어지고 발도 길어지면서 조화롭던 모습을 잃어간다. 동시에 아이들의 근육이 발달되기 시작하는데, 남자아이들이 여자아이들보다 더 강하게 발달한다. 얼굴에도 변화가 생겨, 보통 코가 길어진다. 아이들의 움직임도 유연하지 않고 굉장히 빠그덕 빠그덕 움직이는

것을 볼 수 있다. 이 시기에 이차성징이 나타나지만, 아이들은 아직 그것을 자각하지 못한다. 이전에도 조금씩 나타나긴 했지만 이제는 아이들의 성별의 차이가 강하게 구별되면서 나타난다. 남자아이들은 강하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 힘겨루기를 하고 여자아이들은 진하게 화장하기 시작한다.

이 연령의 남녀 아이들에게 공통으로 나타나는 것은 뚜렷한 정의감이다. 그리고 뚜렷한 이원성이 나타난다. 이는 아이들의 사회성에서도 나타나는데, 어떤 아이들은 항상 밖에만 있고 다른 아이들은 무리행동을 좋아해서 또래그룹을 찾게 된다. 아이들은 정서적이고 신체적인 큰 변화에 압도당하는 듯한 느낌을 받고 균형감을 잃어버리게 된다.

또한 아이들은 새롭고 비밀스럽고 금지된 뭔가를 해보는 것을 좋아한다.

정서적인 면으로는 비판하고 싶어 하고 토론하고 싶어 한다. 이 때의 아이들은 토론하고 비판하기를 즐긴다. 그리고 뭔가를 찾고 이상적인 것을 찾아가고 있다는 인상을 준다.

이 시기는 아이들이 점점 자의식이 생겨나기 시작하는 때이다.

그리고 아이들은 타인을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기고 끊임없이 이원성 속에 살아가게 되어, 때로는 호감을 느끼고 때로는 반감을 느낀다.

아이들이 토론하기 시작하면 충돌이 생긴다. 이때에 교사는 유머감과 침착함이 필요하다. 아이들은 악의가 있어서가 아니라 뭔가 방향성이나 상을 찾아가고 있기 때문에 교사의 적절한 반응이 필요한데, 교사가 감정적으로 반응을 하고 객관적으로 반응을 하지 못하면 아이들은 종종 실망한다. 교사가 아이들에게 유머와 친절함을 보이는 것도 좋지만, “이제는 그만, 여기가 끝이야!” 하며 경계를 보여주는 것도 중요하다.

그리고 절대 감정적으로 반응해서는 안 된다. 교사가 아이들에게 논쟁거리를 일으킬 때는 아이들이 공감할 수 있고 동의할 수 있고 생각해볼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슈타이너는 이때부터 교사가 생동감 넘치는 수업하기를 요구한다.

슈타이너가 말한 세 줄의 격언이 있다. 수업 전에 참고해야 할 격언이다.

“예술적인 것에서 사고적인 것으로, 행위에서 생각을, 아름다움에서 규칙성을.”

예술적인 것은 영혼과 정서적인 것에서 나온다. 아이들과 예술적인 작업을 하는 것은 대부분 예술성과 관련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사고적인 것으로 가는 것은 예를 들면 예술성에 포함된 규칙성을 아이들이 이해하게 하는 것이다. 물리에서 진자 운동처럼 왔다 갔다 하는 것을 눈으로 보면 아름답다고 할 수 있지만, 그 운동이 나타나기 위해서 어떤 운동이 필요한지, 어떤 기술이 있는지 이해하는 것은 아이들의 사고적인 부분이다.

5학년 아이들이 6학년 아이들보다 훨씬 정서적이다. 동물의 특징적인 정서적 양태를 그리는 것은 5학년 때가 적당하다.

수공예는 아름답고 의미 있는 작업이기도 하지만 아이들의 실용품을 제작하면 좋다는 이야기를 했었다. 그러나 여기에서 다루는 동물은 장난감이나 실용품이 아니다.

아이들은 외부세계에 있는 하나의 존재로서 동물을 작업하게 된다. 동물이라는 것이 도대체 어떤 존재인지 들여다보면서 내적으로 그 동물과 만나는 것이다. 동물들의 움직임에는 정서적인 특징들이 있다. 아이들이 동물 바느질을 하면 평면적으로 그렸던 그림을 입체적으로 만들어 내

게 되는데, 이때에도 중요한 것은 안에서부터 밖으로 채워져 나가는 것이다. 아이들이 평면그림에서 동물인형까지 만들기 위해서는 무엇인가를 파악하고 통찰하고 이해할 수 있어야 한다. 아이들이 이 동물을 네 발로 똑바로 서게 하기 위해서는 먼저 두 발로 단단하게 땅 위에 서는 법을 배워야 한다. 이 동물 바느질을 한다는 것은 가시적인 세상에 아이들이 적응해간다는 의미를 갖기도 한다. 그리고 동물 작업을 통해 아이들은 동물의 육체성에 더 다가간다. 이 동물이 어떻게 걸음걸이를 하는지, 귀는 어떻게 달려있는지, 얼굴은 어떻게 생겼는지 등 가시적인 동물의 구체적인 형상을 관찰하고 살펴보면서 작업하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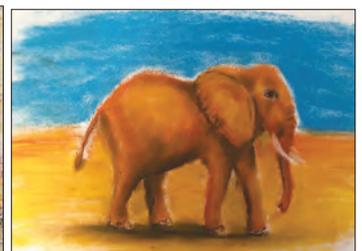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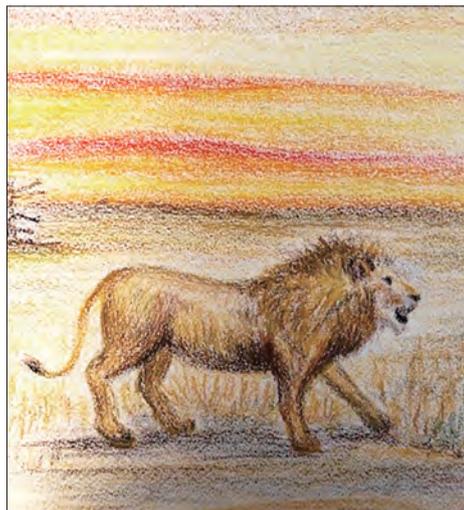
동물을 만드는 목적은 동물의 정확한 자연과학적인 모상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그 동물만의 특징적인 것, 그 동물의 영혼이 드러난 것을 본뜨

고 표현하는 것이다.

동물 만들기에 이성적인 작업과 감성적인 작업이 있다. 예를 들면 뒤집기는 아이들에게 정서적으로 많은 일이 일어나는 감성적인 작업이라고 할 수 있다.

6학년에서 첫 수공예 수업을 어떻게 시작하면 좋을까?

시구 하나를 읽고 시작할 수 있다. 동물에 관련된 시를 2주마다 새로 골라, 처음에는 들려주고 그 다음에는 아이들이 각자 동물시를 지어서 수업을 시작할 때 발표하게 한 다음, 동물에 대한 수수께끼를 내는 것도 좋다. 🐾



# 오이리트미 전문교사 양성과정

오이리트미는 루돌프 슈타이너가 창안한 동작예술로, 그리스어로 '아름다운(eu)+리듬(rhythmic)', '아름다운 동작'을 뜻합니다.

오이리트미는 발도르프 학교의 필수과목 중 하나로, 지속적인 연습을 통해 집중력과 의지력을 기르고, 동선의 움직임을 공동으로 실현하며 공간 감각과 사회성을 키웁니다.

발도르프 교육 운동이 질적, 양적으로 확산될 수 있도록 사단법인 한국슈타이너인지학센터는 독일 슈투트가르트 오이리트미메움과 발도르프 교육대학의 협력으로 2017년 서울오이리트미메움예술원을 개관했습니다.

현재 예술원은 오이리트미스트 양성과정, 워크숍과 일반인을 위한 강좌를 운영하고 있으며, 피테아눔 예술분과가 정한 기준에 따라 총 5년 간의 교사 양성과정을 마친 전공자는 오이리트미 전문교사 자격을 얻습니다. 이후 유아교육기관과 학교 현장에서 활동할 수 있으며 동시에 교육오이리트미 석사과정 입학 자격, 치유오이리트미과정 입학 자격과 오이리트미 앙상블 입단 자격이 주어집니다.

기간 2020년 8.16.(금)-8.28.(금) 9:00-18:15

장소 서울오이리트미메움 6층 강의실

참여 1기(4학년 재학생 12명) 2기(2학년 재학생 1명)

## 책임교수진

### 음악오이리트미, 언어오이리트미

미하엘 레버(Michael Leber), 하이오 데커(Hajo Dekker)

### 음악오이리트미, 한국어오이리트미

한미경

## 음악이론

이윤옥

## 언어조형

신영주

## 오이리트미와 함께한 4년 반

안녕하세요? 저는 두 자녀를 둔 어머니이자 서울 오이리트미에서 오이리트미를 배우는 학생 김계연입니다. 처음 영유아 아카데미 수업에서 오이리트미를 접하게 되었고 그로부터 지금까지 어떤 힘에 이끌린 듯 여기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벌써 4년이 넘는 시간이 훌쩍 지나갔습니다.

예비 학기로 시작한 오이리트미 전문과정의 첫 만남. 여러 사람이 각자의 인생 어디쯤에서 오이리트미라는 이름 아래 모여들었습니다. 두렵기도 하고 떨리기도 했던 것은 저만이 아니었을 겁니다. 그리고 그 시작을 함께해 주신 독일에서 오신 교수님들, 미하엘 레버와 하이오 테커 선생님이 언어와 음악 오이리트미를 맡아 우리를 정성껏 지도해 주셨고, 인지학은 물론 한국어와 한국철학에 관심이 깊은 한미경 선생님이 통역과 한국어 수업을 맡아 애써 주셨습니다. 게다가 이듬해부터는 역시 독일에 계신 임동원 선생님이 우리의 음악 오이리트미를 맡아 주셨습니다. 오이리트미를 배우려고 유학까지 생각해본 적이 있는 저는 첫 배움에서 얻을 수 있는 중요한 내용을 한국에서 한국어로 들을 수 있었던 것에 감사합니다. 제가 만약 유학을 떠났다면 미처 언어 소통이 원활해지지 않은 상태에서 내용의 깊이를 온전히 얻기가 쉽지 않았을 것으로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한 해 두 해 시간이 흐르고 우리가 배

우는 내용도 가치를 쳐 갔지만, 돌이켜보면 처음 배운 내용에서 달라진 것은 없었습니다. 남이 나보다 더 나아 보이기도 하고 내가 남보다 더 나아 보이기도 하고 내 뜻대로 몸이 움직이지 않아 속상하기도 하였지만, 그런 날들도 차차 지나갔습니다. 선생님들이 가르쳐 주신 것들은 차츰차츰 짝이 트고 변모하면서 제 안으로 스며들었고 어느 순간부터 저는 그것을 알아차리게 되었습니다.

오이리트미를 배우면서 가장 많이 들어야 했던 독일어 단어, “추잠멘Zusammen(함께)!” 오이리트미를 배우는 여기서는 서로의 땀냄새에 섞여 지내야 하고 남의 발을 밟고 내 발이 밟히고 서로가 보기 싫어도 봐야 하며, 부딪히고 넘어지는 일이 다반사입니다. 육체적으로도 그랬고 감정적으로도 그랬습니다. 배우겠다는 각오로 날이 서서 동료들 사이의 긴장감이 고조되던 때도 있었습니다. 그때마다 우리의 선생님들은 “함께 가라!”고 했습니다. 내가 맞니 네가 틀리니 하지 말고 묵묵히 함께 가라고.

싫은 것이 없는 상태, 있는 그대로 마주할 수 있는 상태. 그것에 이르기 위해서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함께한다는 것이 늘 좋기만 한 건 아닙니다. 때론 남의 고통으로 내가 더 괴롭기도 하고 반대로 슬퍼하는 나로 인해 이웃이 더 고통스러워하기도 합니다. 우리는 각자가 삶의 자기 몫을

김계연 (오이리트미 1기 재학생)  
후기

다하고 옆 사람을 배려하는 태도를 익혀야 했습니다. 내 몫을 잘하면서 이웃을 잘 데리고 가기! 하루하루 시간이 지나면서 저는 조금씩 제 두려움을 걷어내고 내 앞에 있는 상대를 향해 나아갈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주어진 상황을 받아들이고 내 몫을 다하며 이웃을 생각하는 날이 이어지다 보니 문득 어느 순간부터 동료 한 사람 한 사람의 모습이 빛나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의 동작이 보이고 그 사람이 보이고, 저는 그런 동료들 모습이 참 좋았고 제가 그들을 알아보게 된 것이 기뻐했습니다. 그리고 이런 배움의 기회가 있음에 감사했습니다.

2020년 봄에 불어 닥친 코로나바이러스의 확산, 그에 대한 인간의 대응. 올해는 예년 같은 긴 연수는 기대하기 어려웠고 예정됐던 수업이 취소되고 대체되기도 했습니다. 그래도 저는 이 상황도 괜찮았습니다. 배운 것들을 돌이키고 곱씹는 시간이 되었으니까요. 지난 1월에 배운 영혼탈력의 힘이였을까요, 올해 슈타이너의 글이 선명하게 눈에 들어오기 시작했고 그의 주요 저작을 조금 쉽게 읽을 수 있었습니다. 게다가 여름에는 독일에서 한미경 선생님이 자가격리를 감행하면서까지 와 주셨습니다. 그 용기가 참 고마웠고 저도 용기를 내겠다고 다짐하였습니다.

코로나 정국으로 인해 사람 간 만남과

이동이 자유롭지 못한 요즘이지만, 오이리트미는 제 안에서 그리고 우리 안에서 계속 살아 움직이고 있습니다. 때로는 '혼자' 때로는 '함께', 물리적인 공간이 아닌 곳에서 우리는 계속 배울 수 있고 앞을 향해 나아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에게 새로운 숙제가 닥쳐 있고 그것을 해내고 나면 새로운 풍경을 맞게 될 겁니다. 저는 삶이 저를 어디로 데려다 줄지 조금 기대가 됩니다. 그리고 늘 저와 함께해 준 가족들, 친구들, 선생님들, 동료들에게 감사합니다. 언제나 기나긴 비행을 마다치 않고 와 주신 선생님들, 특히 연료하신 두 교수님께, 그리고 늘 뒤에서 애써 주시는 사단법인 한국슈타이너인지학센터 관계자분 모두에게 감사드립니다. 🍀





**루돌프**  
**슈타이너 어록**

자연연구자가 자연의 정신을  
 탐구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이 책의 저자는 정신의 본질을  
 알아내려 애썼습니다.

요한나 뤼케에게 헌정(1902년 성탄절)  
 “신비적 사실로서 그리스도교”

길을 비추는 빛을 따라가라!  
 하지만 소용없으리라,  
 당신 자신이 빛이 되지 않는다면

1904년 마리 폰 지버스에게 헌정(1904)  
 “빛을 찾아서” 에 남긴 메모

사람이 도달하는 정신적 목표야말로  
 친구 사이를 잇는  
 가장 고귀한 끈입니다.

퀸스틀러 부부에게 헌정(1904)  
 “신지학”

사고 안에서 영원히 생성하라

걷는 걸음마다 깊어져라  
 피상적인 것에 빠지지 말라  
 심오히 탐구하라.

“자유철학” 중에서(1894)

인식이 사람의 영혼에게 말합니다.

“운명을 깊이 생각하라  
 인내하며 그것을 알아내어라.  
 운명을 직관하고  
 어려움을 감내하면  
 그대는 자유를 얻게 되고  
 다른 영혼의 실체와  
 자유로이  
 이어지리라.”

에디트 매리언에게 (1921년 2월 9일)



우주는 세계를 지탱하며  
 본질은 존재에서 스스로를 체험하며  
 존재는 본질 안에 싸여 있습니다.  
 또한 본질은 존재에 작용하여  
 변화 속에 행위를 이뤄내고  
 세계를 향유하며 안식합니다.  
 오, 우주여, 세계를 이어가소서!  
 (천칭자리)

자신의 본질에서 찾아라,  
 그러면 그대는 세계를 발견할 것이다.

우주의 섭리에서 찾아라,  
 그러면 그대는 제 자신을 발견할 것이다.

자신과 세계 사이의  
 움직임을 알아차려라.

그러면 그대에게 사람과 우주의 본질,  
 우주와 사람의 본질이 드러날 것이다.  
 (1919)

태양의 빛은  
 캄캄한 밤이 지나면  
 하루를 밝히네.  
 영혼의 힘은  
 잠의 안식에서  
 깨어나네.  
 그대 나의 영혼이여  
 빛에 감사하라.  
 그 빛 속에  
 신의 권능이 번쩍이네,  
 그대 영혼이여  
 열심히 일하라.  
 (1919)



‘생각하기’는 상으로 하는 활동으로, 이는 우리가 탄생 또는 수태 이전에 체험한 것에 기인합니다. 정신적 힘들은 탄생 이전의 우리 안에 상으로 하는 활동을 넣어 주었고, 이 상으로 하는 활동이 우리가 태어난 뒤에도 여전히 우리에게 영향을 미치는 것입니다. 아이들에게 상을 전달할 때 우리는 교육에서 그 우주적 활동을 다시 받아들이기 시작합니다. 우리는 맹아가 될 수 있는 상들을 아이들 안에 심어 주는 셈인데, 이는 우리가 그것을 아이들의 어느 신체 활동 안에 집어넣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교육자인 우리 자신이 상을 통해서 가르치는 능력을 습득할 때, 우리가 언제나 가져야 할 느낌은 이것입니다. “나는 상을 통해 가르칠 때 한 사람 전체에 영향을 미쳐 그 사람 전체가 공명하도록 한다.”

이런 느낌을 자기 안에 받아들여 모든 교육에서 탄생 이전에 체험한 일종의 초감각적 활동이 이어지도록 하는 것, 그것이야말로 모든 교육 활동을 신성하게 하며, 이 신성함 없이는 도무지 교육이란 것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이로써 우리는 두 가지 개념 체계를 알게 되었습니다. 즉, 한쪽에는 인식하기, 반감, 기억, 개념의 체계가 있고, 다른 쪽에는 행동하기, 호감, 판타지, 상상의 체계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 두 체계를 특별하게 이용하면, 실제 교육에서 우리가 해야 하는 모든 일에 유용할 것입니다. 이에 관한 이야기는 내일 계속하겠습니다.

출처: 《일반인간학》 (1919년 8월 22일, 두 번째 강연 중에서)



# 응용 인지학의 현장 소식

- 45 실습기관 탐방 보고
- 49 안양발도르프학교
- 51 대전자유발도르프학교
- 53 영유아 교육연대 현장소식

## 영유아 교육 현장 국내 실습지 방문의 의미

오경희  
(나임발도르프평생교육원 원장)

사단법인 한국슈타이너인지학센터 20년!

실습지 방문을 기획하며 뒤돌아 보기를 한다. 센터 여정은 수많은 사연을 담고 지금에 이르렀다. 어쩌면 우리네 삶의 모습과 흡사한 성장기를 거치고 이곳에 도달했으리라는 생각이 든다.

이번 겨울의 과제로 한국 발도르프 영유아 교육현장을 직접 돌아보고 앞으로 더 나은 길을 모색하기 위해 백미경 실습지도 선생님과 길을 나섰다. 코로나 19로 인해 방문과 여행을 자제하는 분위기지만, 실습 기관들의 협조로 무난히 둘러볼 수 있었다.

“무한한 세상의 바닷가에서 아이들을 만난다.

머리 위 끝없는 하늘은 잠잠하고 쉼없는 바다는 거칠게 출렁인다.

무한한 세상의 바닷가에서 아이들은 만나 춤춘다.”

Rabindranath Tagore, “마음에 힘을 주는 동화” 中

현재 우리가 처한 상황에서는 급변하는 분위기 속에서 흔들리지 않고

자신을 고요하게 지킬 수 있는 강한 자아가 필요하다. 자유를 향한 교육, 생활 교육, 치유 교육은 현실 속에서 교육으로 자유로운 자신의 생각을 펼쳐내는 일이며 발도르프 교육이 전하는 시사점이기도 하다. 교육자들은 아이들 개개인의 순수한 본성을 잘 지켜내고 있는지 수시로 자신을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 이런 의미에서 실습지 방문은 우리에게 기대 이상의 가치를 발견할 수 있는 계기를 가져다주었다.

각 현장에서는 교육장에서 함께 공부하고 함께 고민했던 동료들의 내면이 가공되지 않은 그대로 살아 숨쉬고 있음을 느꼈다. 공간에서 느껴지는 안락함, 아이들의 밝은 웃음, 믿음. 곳곳에서 묻어나는 선생님들의 손길로 구성된 세심한 환경은 아이들에게 현실의 두꺼운 보호막 역할을 충실하게 실행하게 해내고 있음을 증명해 주었다. 교육의 발전과 지속성은 교육 현장에서 출발한다. 사단법인 한국슈타이너인지학센터는 발도르프 교육 현장들과 긴밀한 연계 속에서 발도르프 영유아 교육을 배우는 연수생들에게 현장감을 익히게 하고,

이미 발도르프 교육을 실천해온 동료 교사들을 연결하여 연대감을 느끼게 하며, 현장에서 겪는 어려움을 공유하고 극복하는 역량을 쌓도록 연결망을 구축하고 지원해야겠다는 생각이 더욱 강해졌다.

현장 방문을 기꺼이 수락하시고 반갑게 맞아 주신 발도르프 교육자들에게 깊은 고마움을 전한다. 어떤 어려움이 다가와도 변함없는 열정으로 영유아기를 지키는 파수꾼 역할을 맡아주길 바란다. 🍀

# 2021 영유아 실습기관

기관명	강남발도르프킨더가르텐
시설장명	최분희
특징	- 비영리평생교육시설로 운영 - 3-7세 혼합연령보육
주소	서울시 강남구 논현로2길 22 아람손프라자 1층
연락처	02-574-8210
정원	30명
교사 인원	4명
교사 외 인원	주방교사 1인
전경	

기관명	강남울현발도르프킨더교육원
시설장명	최분희
특징	- 비영리평생교육시설 - 3-7세 혼합연령보육
주소	서울 강남구 방고개로 24길 54-3 강남울현발도르프킨더가르텐
연락처	02-3412-8210
정원	30명
교사 인원	4명
교사 외 인원	1인
전경	

기관명	꿈꾸는 어린이집
시설장명	임은화
특징	- 아파트 1층 시설. - 베란다를 터서 바깥활동, 모래놀이가 가능. - 주변공원산책도 리듬적으로 실행.
주소	서울시 용산구 효창원로 69길 57. 101동 104호 (효창동, 효창베네스빌)
연락처	02-719-6545
정원	영아 18명
교사 인원	원장포함 교사 5명
교사 외 인원	주방교 1인
전경	

기관명	큰다우리 발도르프 어린이집
시설장명	이혜련
특징	- 교사와 부모 협력을 중시 - 좋은 먹거리
주소	서울시 구로구 구로동로 28길 33-5
연락처	070-8229-2897
정원	영유아 42명
교사 인원	시설장 포함 8명
교사 외 인원	주방교사 1인
전경	

기관명	수잔나어린이집
시설장명	전미송
특징	- 고척근린공원 환경이 갖춰진 실외놀이 환경 - 영아공간, 유아공간 특성에 맞게 실내 환경구성
주소	서울시 구로구 고척로51길 73
연락처	02-2689-8156
정원	영아 31명 / 유아 60명
교사 인원	교사 9명
교사 외 인원	6명
전경	

기관명	바람아래발도르프어린이집
시설장명	이영숙 (안미순)
특징	- 부모협동시설로 운영
주소	서울시 성북구 길음로9길 40 래미안 아파트 108동 101호
연락처	02-942-5090
정원	영유아 19명
교사 인원	교사4명
교사 외 인원	주방교사 1인
전경	

기관명	항동발도르프어린이집
시설장명	남윤경
특징	산자락과 주변 서울푸른수목원이 있어 산책 및 나들이 환경이 잘 갖추어져 있다.
주소	서울시 구로구 연동로 296-18 105동 102호
연락처	02-869-3795
정원	영아 20명
교사 인원	정교사 4명
교사 외 인원	주방교사 1인
전경	

기관명	국공립) 서마어린이집
시설장명	전정현
특징	- 발도르프 교육철학을 실천하고자 노력하는 국공립 어린이집 - 아이가 하고 싶은 놀이를 스스로 선택하고 놀이할 수 있다. - 따뜻하고 편안한 환경
주소	서울시 성동구 청계천로546
연락처	02-2239-5369
정원	59명
교사 인원	6명
교사 외 인원	5명
전경	

기관명	항동발도르프킨더교육원
시설장명	백미경
특징	- 비영리평생교육시설로 운영 - 영유아 혼합연령 돌봄
주소	서울시 구로구 오리로 13길 12-6
연락처	02-2688-0520
정원	영유아 22명
교사 인원	정교사 3명
교사 외 인원	2명 (대표자, 주방교사)
전경	

기관명	또래숲속학교
시설장명	장금옥
특징	- 비영리 평생교육원 시설로 운영 - 4-7세 혼합연령
주소	경기 수원시 팔달구 화서동 344-65
연락처	031-242-2255
정원	40명
교사 인원	7명
교사 외 인원	2명
전경	

기관명	동수원킨더선교원
시설장명	송종수
특징	2개반으로 나누어서 운영. -만 3세반 1반 -만 4세~만 6세 혼합반 1반
주소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영통로 153번길 18-15 동수원장로교회 6층
연락처	010-6551-7806
정원	정원 42명 / 현원 40명
교사 인원	6명
교사 외 인원	1명
전경	

기관명	햇빛자연발드르프어린이집
시설장명	김경화
특징	- 아파트 1층에 위치하는 민간가정어린이집 형태
주소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중앙로 558번길57 1822-103(햇빛마을)
연락처	031-970-1608
정원	20명
교사 인원	시설장 포함 교사 4명
교사 외 인원	주방교사 1인
전경	

기관명	아이마을 동구나무어린이집
시설장명	정은혜
특징	- 부모협동시설 어린이집
주소	경기도 과천시 회망2길 37. 1층
연락처	02-502-8295
정원	20명
교사 인원	교사 3인
교사 외 인원	주방교사 1인
전경	

기관명	낙원어린이집
시설장명	김종현
특징	- 사회복지법인 어린이집
주소	전라남도 화순군 동면 천운길 35
연락처	061-373-0815
정원	100명
교사 인원	6명
교사 외 인원	3명
전경	

기관명	부산자유발드르프킨더가르텐
시설장명	정기옥
특징	- 부산자유발드르프학교와 함께 성장 - 부모협동시설로 운영
주소	부산시 남구 유엔평화로 70번길 28
연락처	051-627-0424
정원	아동 17명
교사 인원	교사 3명
교사 외 인원	요리사 1명
전경	

기관명	희수자연학교어린이집
시설장명	백승미
특징	- 장애아통합어린이집 시설. - 교육자의 주체적이고, 자존적 힘을 잘 길러 본보기로서 좋은 교육행위를 하기위해 교사교육에 가장 큰 중점을 두고 있다.
주소	울산시 북구 이화4길 9 희수자연학교
연락처	052-297-7996
정원	98명 정원 (유아반 10반, 영아반 2반)
교사 인원	정교사 12명
교사 외 인원	9명
전경	

# 배움이 즐거운 학교! 안양 발도르프학교를 소개합니다.

문지은  
(안양 발도르프학교 6학년 담임)

안녕하세요. 경기도 안양시 김중업 박물관 앞에 자리한 안양 발도르프학교를 소개합니다.

안양 발도르프학교는 뒤로는 삼성산이 들판하게 지켜주며 앞으로는 안양천 맑은 물이 흘러가는 곳에 자리하고 있습니다. '마음을 편하게 하고 몸을 쉬게 하는 극락정도의 세계'라는 뜻을 가진 '안양'으로 터전을 이전한 지 벌써 4년이 지났습니다. 아직도 광명 호봉골 구름산 발도르프학교 앞마당에서 뛰어놀던 아이들의 모습이 생생하게 떠오르지만, 안양의 새 터전에서 많은 이야기를 만들어

간 것 같습니다.

광명에서 안양으로 터전을 이동하기까지 우리는 큰 용기와 많은 노력이 필요했습니다. 무엇보다 이전으로 인해 학교와 합하지 않는 가정이 생기지 않도록 하는 것에 온 마음을 모았습니다. '안양 석수동 터전'은 모두가 동의하는 터전이었고 뜨거운 열정으로 짧은 시간에 영구 터전 마련과 안양 이전을 이루어냈습니다. 터전 이전으로 인한 가장 큰 변화는 학교 이름 변경이었고, 그 외에도 광명 지역에서 통학하는 아이들을 위한 셔틀버스를 운영하기도 하고, 여

러 가구가 안양으로 이사를 오기도 하는 변화의 과정을 겪었습니다. 안양으로 이사 온 뒤 가장 큰 장점은 삼성산과 관악산 그리고 계곡을 아이들의 놀이터로 마음껏 이용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또 안양은 수도권을 중심으로 교통과 접근성이 좋아서 학교 밖으로 교육 활동을 더 확장할 수 있었습니다. 미술 시간엔 랜드아트를 할 수 있는 수업 재료가 지천으로 널렸고, 안양이라는 이름의 지명이 유래한 안양사, 안양박물관 등이 있어 4학년 동네학 수업을 하기에도 참 좋았습니다. 안양천은 여름에는 물놀



이, 겨울에는 얼음 썰매놀이 등 자연을 온전히 느낄 수 있는 사계절 놀이터를 제공해 주며, 산행을 마음껏 즐길 수 있는 다양한 산과 예술공원이 있습니다.

안양 발도르프학교는 2001년 광명에서 방과후학교로 시작되었습니다. 2005년 5명의 입학생으로 학교가 시작되었고 약 15년의 세월 동안 많은 어려움과 변화를 거치며 단단해지는 시기를 지나왔습니다. 그동안 구름산학교와 안양 발도르프학교를 거쳐 왔던 많은 학생, 학부모, 교사들의 학교에 대한 열망과 노력이 모여 지금의 안양 발도르프학교가 되었습니다.

학교가 작아서 오는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 주변의 여러 학교와 수업, 여행, 실습, 절기 행사, 운동회 등을 같이 해왔습니다. 안양학교가 가진 가장 큰 장점은 '개방성', '유연함',

'따뜻함', '연대의 힘'입니다. 안양은 학교 간 연대에 진정성을 가지고 노력해왔고, 2019년 '연합상급 협약식'이란 열매를 맺었습니다. 그리고 2020년 연합상급 1기가 9학년을 시작했습니다. 지금의 12학년 역시 안양과 부천에서 온 친구들이 모여 만들어진 학급이며, 9학년은 인천의 8년 담임 과정을 마치고 온 친구들입니다. 안양학교는 그동안 어려움 속에서도 교사들의 교환 수업, 부산 발도르프학교와의 연합수업 등으로 연대에 가며 상급 교육을 이어나왔습니다. 그리고 2020년 안양 발도르프학교는 첫 번째 12학년 졸업을 앞두고 있습니다. 구름산학교 1학년으로 시작해 안양 발도르프학교 12학년이라는 안양학교의 발전 역사와 온전히 함께한 친구들입니다. 2020년 코로나로 인한 어려움 속에서도 안양학교는 12학년 프로젝트 발표회와 8학

년 프로젝트 발표회를 진행하였습니다. 많은 교사와 학부모님들이 잘 성장한 아이들의 모습에 가슴 벅찬 감동을 느꼈습니다. 돌이켜 보면 그동안 많은 '처음'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 8학년, 첫 번째 연합상급, 첫 번째 졸업생 등등.... 학교가 발전하고 완성되어 가면서 맞이하는 '첫 번째 순간'들은 우리가 소망하며 심었던 씨앗들에서 피어난 '꽃'들을 확인하는 순간이었습니다.

안양 발도르프학교는 '천천히 피는 꽃'입니다. 하지만 쉽게 지지 않고 추운 날씨도 비바람도 더운 맹벌도 버텨내는 강인한 꽃입니다. 그 꽃을 지켜내기 위해 이 순간에도 많은 사람이 온기와 양분을 주고 계신 분들, 그동안 안양 발도르프학교의 꽃을 지켜준 많은 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



## 아이에게 준 선물, 고향 같은 학교

김덕윤  
(대전자유발도르프학교 학부모)

“아빠, 우리 학교는 시골 학교야 도시 학교야?”

“대전이 얼마나 큰 도시인데, 도시 학교지.” 딸아이가 다시 묻는다.

“그런데 우리 학교엔 논도 있고, 밭도 있고, 산도 있잖아?”

얼마 전, 딸아이의 질문에 결국 ‘그러네’ 하고 웃었다.

나는 어린 시절을 시골에서 자랐다. 어른이 된 후 도시 생활을 어느 정도 하고서는 귀농을 꿈꾸게 된 나였지만, 여전히 도시에서 살고 있다. 그래서인지 아이들에게 도시를 고향으로 만들어 준 것에 대한 미안함이 있었다. 그런데 이런 미안함은 얼마 전 딸과의 대화로 사라졌다. 대전 자유 발도르프학교, 도심 속에 있는 자연취락지구의 산자락에 버려진 농가 주택에서 학교를 시작한 것이 5년쯤 전이다. 고향 같은 학교를 만들어주고 싶었던 마음이 여기에서 뿌리를 내리고 밀동을 키우고 있다.

비가 오는 날이라도 아이들은 눈 두령을 따라 탐험 가기를 좋아한다. 그저 우산을 들고 기사가 된 듯 숲을 향한다.

저 큰 농사는 마을 사람들이 짓지

만, 그 경이로움은 우리 아이들이 오롯이 받아들이는 셈이다. 고라니, 왜가리가 찾아오고, 미꾸라지, 개구리는 보물찾기가 된다.

얼마 전에는 진짜 사슴이 찾아와서 아이들을 놀라게 했다. (다만 뺨도 나온다는 것이 함정일지도.)

대전 자유 발도르프학교는 여전히 작은 학교이다. ‘잘 될까?’라는 눈빛을 받으며 돌아보기를 얼마나 반복했던가. 그만큼 슬픔도, 기쁨도 많았다. 아픔으로 떠나 보낸 사람들도 있고, 소확행을 즐길 수 있게도 되었다. ‘영차! 영차!’ 하고 기운 차리고 신바람 부릴 줄도 알게 되었다. 그리고 우

리 학교가 분명 한 해 한 해 성장하고 있음도 느낀다. 마치 자라나는 아이들처럼.

쌍둥이인 두 아이가 차례로 꽃아치를 지나 레드카펫을 걸어 선생님께 안긴다. 그리곤 두 명의 공주가 보물을 찾아 떠나는 여행 이야기를 듣는다. 슬기롭고 힘차게! 이 두 명의 소중한 아이로 대전 학교는 생명력을 이어가는 것 같았다. 이렇게 2년 전 입학식은 잊을 수가 없다. (그 가족은 셋째가 올해 입학하고, 넷째가 곧 태어난다. 이 모든 것이 발도르프 교육의 은혜라고 믿고, 17년 학교 생활을 각오하고 있다는데…….)



생명력은 자연과 같다. 따뜻한 봄 날만이 아니라 추운 겨울날도 겪어야 건강해지는 법이다. 대전 자유 발도르프학교는 이렇게 온전히 생명 감각을 키우고 있다.

아빠들은 주말에 학교에 모이기를 즐겨한다. ‘코로나 19’가 아니라면 아빠들은 학교에 비밀공전을 더 만들었을지도 모른다. 해마다 레고인 양 학교의 공간을 바꾸고 넓히는 아빠들은 마법사 같다. (앗! 엄마들의 황금손은 더 말할 것도 없다.)

“나무도 쉬는 날이 필요할 것 같아요.”

“그럼 아이들이 속상할 거예요.”

“그래도 저 고마운 참나무를 지켜야 하니까....”

“좋은 방법이 없을까요?”

아이들에게 가장 사랑받는 참나무는 학교 뒷동산에서 누운 듯이 학교를 굽어보고 있다. 아이들 목말을 태워주느라 조금씩 더 굽어지는 참나무가 하염없이 고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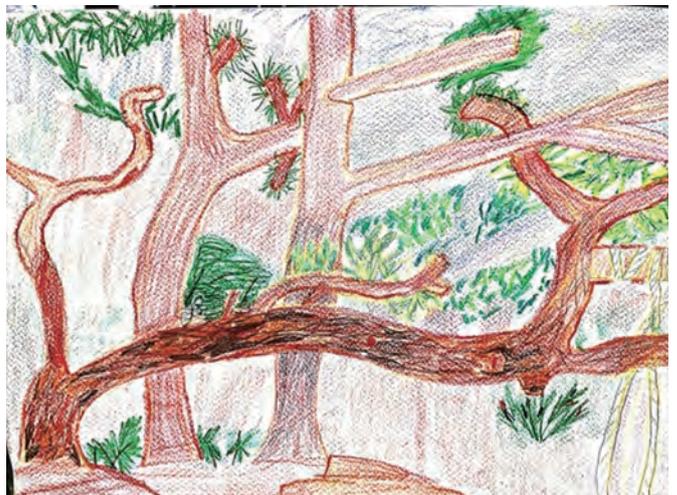
이번에는 나무타기를 좋아하는 아이들을 위해 구름사다리를 만들기로 한다. 대전의 공단을 돌아다니며 철근을 구해오고, 인맥 중에 용접 가

능한 사람을 찾아내고, 길이를 얼마나 할 거냐 서로 옥신각신하기도 한다. 아이들의 발디딤으로 단단해진 작은 운동장 한쪽을 삼질하고는 완성된 구조물을 ‘영차!’ 하고 다 함께 들어 옮긴다. 성취감이란 이런 건가? 맛을 본다. 아이들은 역시 금세 손바닥이 벗겨지기 일쑤다. 덕분에 참나무는 좀 쉴 수 있게 되었다.

봄날 손가락 뜨개질의 향연을 실컷 즐기던 아들 녀석이 지난 주말 내내 밀랍으로 여러 동물을 만들며 자신만의 모험 이야기를 만들어낸다. 학교에서 친구들과 놀고 놀아도 더 놀 수 있는 게 신기한 여덟 살 아이

지만, 선생님과 하나씩 하나씩 채워가는 공부가 거름이 되고 있음이 보인다. 부모들은 수공예 모임으로 인형극도 올리고, 책 모임으로 발도르프 교육을 적셔간다. 요즘엔 먹거리 모임이 화젯거리다. 부모들도 이렇게 선생님과 균형을 맞추려고 노력한다.

나는 밀랍도 서툰고 5음계 노래마저 부르기 힘들다. 아빠는 왜 발도르프 학교를 안 다녔는지 안쓰럽다는 아이들의 표정을 마주할 때면, 내가 얼마나 좋은 선물을 아이들에게 안겨줬는지 알게 된다. 나는 멋진 아빠다.



# 한국 발도르프 영유아 교육연대 국제 콘퍼런스 보고서

- Zoom Council Meeting, October 6-10, 2020

백미경

(한국 슈타이너 발도르프 영유아 교육연대 총무)

2019년 12월 한국 발도르프 영유아 교육연대가 창립되었다. 우리는 발도르프 교육이 국제적인 교류와 협력을 통해 세계적인 교육으로 연결되도록 하기 위해 IASWECE(국제 발도르프 영유아 교육협회)의 회원국 가입 절차를 밟았고, 2020년 5월 인준을 받기 위해 준비를 끝냈다. 인준 회의인 IASWECE 국제 콘퍼런스가 코로나19 상황에 의해 10월로 연기되었다. 결국 국제 콘퍼런스는 ZOOM으로 개최되어, 2020년 10월 6일부터 10일까지 회장 정애영과 통역 박찬우가 5일간의 국제 콘퍼런스에 참여하였다. 이 국제 콘퍼런스에는 36개국의 대표들이 참석했고, 새롭게 국제기구의 회원국으로 가입을 신청한 나라 2곳(한국, 동아프리카 국가들)에 대한 회원국으로서의 인준 절차가 이루어졌다.

첫날은 미팅 시작 30분 전에 Zoom에 들어가 Council 구성원들과 간단한 이야기를 나누고 그들이 서로 이야기하는 것을 들었다. 대략 36개국 대표들이 참가한 이번 미팅에선 대표들끼리 서로 친밀한 관계를 형성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Council 회의에서 사용하는 언어는 영어와 독일어이다.

영어권에 속한 대표들이 있고 독일권에 속한 대표들이 다르므로 두 가지 언어를 동시통역하면서 진행하였다. 각국 대표는 영어와 독일어 둘 중 하나만 사용해도 무방하다. 대표 중에 영어와 독일어 둘 다 능숙한 사람들도 있었고, 미숙한 대표들도 있었다 하지만 기본적인 의사소통을 전달하는 능력은 있었다.

5일 동안 매번 본회의의 시작은 슈타이너의 “Imagination”이라는 잠언을 두 가지 언어로 두 명의 대표가 각각 읽었다. 시를 낭독 한 뒤 30초 정도 묵상 시간을 가졌다. 2020년 국제 콘퍼런스의 전체적인 회의 주제는 “문화적 다양성”에 대한 연구와 Council의 행정 관련된 업무를 처리하는 내용으로 구성되었다. 먼저 첫날 “문화적 다양성” 공부에 관해서는 이전에 숙제로 봤던 TED Talk의 “The Danger of A Single Story”를 진행자가 요약하였다. 요약 후 진행자는 각국 대표를 소그룹으로 나눠서 “문화적 다양성”을 토론하길 권했다. 진행자는 또 소그룹에서 나눌 수 있는 몇 가지 질문을 말해줬다. 소그룹의 인원은 대략 5~6명 정도였다.

첫날 우리 소그룹의 리더는 브라

질 대표 Silvia 였다. 소그룹에서 10분에서 15분 정도 토론을 하고 다시 전체 회의 그룹으로 돌아왔다. 전체 그룹으로 돌아온 후 진행자는 다음날 각 소그룹 중에 대표 한 사람이 토론한 걸 나누길 원했다. 다음날 우리 소그룹에서 나눔을 할 대표는 노르웨이 대표였다. 곧 이어 전체 그룹은 어젠다에 따라 Coordination Group에 관해 이야기를 시작했다. Coordination Group(CG)은 본회의 혹은 IASWECE가 원활하게 운영되기 위해 일하는 대표들이다. CG 구성원 내에 교체가 있었고, 자세한 내용은 Internal Documents를 참고하라고 했다. CG 구성원들 간의 행정 이야기가 끝나고 새로 멤버십을 신청한 국가들을 이야기하기 시작했다. 이번에 가입하는 국가로는 한국과 동아프리카 국가들이 있었다. 한국은 간단한 인사를 했고, IASWECE는 한국의 지원서를 잘 살펴보았다는 이야기를 했다. 동아프리카 국가들은 이번 회의에는 참여하지 않았다. 멤버십 이야기가 끝나고 진행자가 다음날 일정을 알려주고 마무리로 다시 잠언을 읽고 첫 회의가 끝났다. 🍷

# 빛나는 2021, 여럿이 함께

- 55 내부강좌 이모저모
- 59 2021년 교육일정
- 61 신간소개
- 64 후원안내
- 68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
- 69 후원신청서
- 71 광고

## 2021년 상반기 이모저모 예술강좌

### 미술 - 발도르프 미술교육

2021년도 발도르프 미술 수업은 습식수채화와 밀랍 크레용 그리고 색지공예 등으로 수업이 진행됩니다. 2월부터 시작되는 식물그리기 수업과 형태그리기로 발도르프 교육학의 가치와 내적 힘의 강화를 경험하는 치유의 시간을 갖습니다.



### 음악 - 발도르프 음악교육

“킨더라이어 연주법” 강좌는 초급, 중급, 고급반으로 나누어 꾸준히 개설되고 있습니다. 라이어는 아이들의 몸, 마음 그리고 정신의 조화로운 발달을 돕는 악기입니다. 킨더라이어 연주를 통한 조용한 울림은 내면의 고요함을 느끼게 하며 새로운 삶의 활력과 창조력을 되찾는 시간입니다.



### 수공예 - 발도르프 수공예 교육

“수준별 발도르프 인형 만들기 시리즈” 강좌가 여러분을 기다립니다. 아이들의 열려있는 감각을 자극하고 아이들에게 무한한 상상력과, 성장의 힘을 가질 수 있도록 돕는 놀이감을 만들고 판타지를 제공하는 인형극 무대를 직접 만들고 경험해보는 시간을 갖습니다.



### 발도르프 손유희·라이젠 교육

손유희는 아이들에게 내적 안정감과 생명감각을 높여줍니다. 라이젠은 음악적 요소, 문학, 신체표현 그리고 리듬 생활의 의미가 담겨져 노래와 손동작으로 아이들의 움직임과 상상의 힘을 발달시켜줍니다. 아이들의 하루 일과 중에서 들숨에 해당하는 라이젠 활동을 통해 대근육 동작과 계절을 깨우는 시간입니다.



## 특강

### 이야기 들려주기

날마다 들려주는 이야기를 통해 아이들은 자신의 근원에 대한 상을 떠올립니다. 이야기란 무엇인지, 어떤 효과를 가지는지, 연령에 따른 이야기 선별 방법과 상상력을 높이는 서사적 구연법을 알아보는 시간입니다.



### 감각을 깨우는 계절 환경 꾸미기

계절별로 실내 공간을 아름답게 구성할 수 있는 색채를 내적으로 경험하는 수채화 그림과 다양한 소재로 아이들의 촉각각 발달을 돕고 계절의 분위기를 담은 인형 만들기의 수공예 수업을 동시에 경험하는 특강입니다.



## 인지학과 인문학

### 독일어

이정희 선생님과 여상훈 선생님의 지도 아래 4주 단위로 독일어의 기초문법과 듣기, 말하기를 배울 뿐 아니라 독일 문화를 이해하는 수업입니다. 나아가 발도르프 교육학과 인지학에 담긴 뜻을 더 깊이 이해하고 싶은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Übung macht den Meister!

### 생생철학 시리즈

발도르프 교육 예술의 바탕인 인지학의 이해를 돕고자 기획된 “생생철학 시리즈”는 여상훈 선생님과 함께 각 4주의 세미나 형식으로 진행됩니다. 매회 다른 주제에 대해 스스로 질문하고 답변하는 가운데 인류 정신사의 변천을 체험하는 세미나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 인지학 포럼

2019년 봄부터 시작된 “인지학 포럼”에서는 인지학 공부에 대한 갈증과 열정으로 인지학을 더욱 깊이 이해하고 소통할 수 있는 장입니다. 인지학에 대한 지속적인 공부를 원하시는 분들의 많은 참여를 기다립니다.

## 자격증 과정

2015년 첫 예술공예강사 자격증 과정을 시작으로 현재 한국슈타이너인지학센터에는 총 8개의 민간자격증 과정이 있습니다.

### 1. 국제발도르프교육예술가 (등급: 1급, 2급, 3급) - 등록번호 2013-00410

발도르프 교육의 이론과 실천을 배우고, 국내외 발도르프 교육기관의 현장 경험을 통해 강사의 전문가적 자질을 갖춘다.

### 2. 발도르프 부모교육상담사 (등급: 기본, 강사) - 등록번호 2014-4769

인지학에 바탕을 둔 심리학, 교육학, 인간학을 이해하여 아동 발달 단계에 맞는 환경적, 정서적 지지 기법을 습득한다. 과정 이수 후에는 부모교육 상담 프로그램을 상담 기관이나 보육시설 현장에서 실행하거나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운영하는 및 부모교육 강사로 활동할 수 있다.

### 3. 발도르프 예술공예강사 (등급: 1급, 2급, 3급) - 등록번호 2015-001426

발도르프 교육학의 이해와 인지학을 바탕으로 하는 “예술로서의 교육”을 실현할 능력을 지향한다. 발도르프 공예(수공예, 목공예)와 예술(미술, 음악, 오이리트미, 연극)분야의 프로그램을 교육현장(학교, 방과후교실, 복지시설 등)에서 기획, 지도할 수 있다.

### 4. 발도르프 미술강사 (등급: 1급, 2급, 3급) - 등록번호 2019-002907

미술 교육에 관한 전문성을 갖추는 과정이다. 이수 후에는 발도르프 미술 기법을 활용하여 다양한 교육현장(유아교육기관, 학교, 방과후 교실, 복지 시설 등)에서 지도하고 양성과정을 기획하여 운영할 수 있다.

### 5. 발도르프 음악강사 (등급: 1급, 2급, 3급) - 등록번호 2020-004263

음악 교육자로서 전문성을 바탕으로 발도르프 음악 활용을 익힌다. 이수 후에는 발도르프 음악 프로그램을 교육현장(유아교육기관, 학교, 방과후 교실, 복지 시설 등)에서 지도하고 기획할 수 있다.

### 6. 발도르프 이야기전문가 (등급: 1급, 2급, 3급) - 등록번호 2020-042704

발도르프 이야기 들려주기 분야의 전문성을 갖추어 다양한 교육현장(유아교육기관, 학교, 방과후 교실, 복지 시설 등)에서 연령에 맞는 이야기를 선별하여 아동을 지도하고, 과정을 기획하여 운영할 수 있다.

### 7. 발도르프 손유희·라이겐 지도자 (등급: 1급, 2급, 3급) - 등록번호 2020-004705

발도르프 손유희·라이겐의 이론과 실체를 익혀서 연령 대별에 맞는 수업을 다양한 교육현장(유아교육기관, 학교, 방과후 교실, 복지 시설 등)에서 지도하고, 나아가 이 분야의 전문 지도자로서 코스를 기획하고 운영할 수 있다.

### 8. 피클러 산후육아지원전문가 (등급: 1급, 2급, 3급) - 등록번호 2020-04706

피클러 영아교육학을 토대로 하는 육아지원 전문가로서 실무능력을 쌓는다. 다양한 관련 현장(산후조리원, 관련 기관, 교육기관)에서 산모와 신생아가 안전하고 건강하게 산후조리 기간을 보낼 수 있도록 지도한다.

## 환급과정

2021년 나임발도르프평생교육원은 영유아 보육/교육 기관 현장 교사의 전문성 향상을 위해 사업주위탁 환급 과정을 다양하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난 한 해 동안 참여해주신 모든 교육생들에게 감사드리며, 2021년에도 발도르프 교육 운동이 더욱 확산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을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 • 발도르프 유아교육과정

유아 중심·놀이 중심의 유아교육을 실천할 수 있도록 유아 발달의 새로운 이해와 실행을 위한 교사의 실천적 역량을 키운다. 특히 발도르프 유아교육의 특징인 교육에 예술적 접근을 위해 손유희·라이젠, 라이어, 습식수채화 등 교사의 예술성 함양한다.

### • 발도르프 유아·놀이 중심 교육과정

개정누리과정의 실천적 이해를 돕고, 놀이 중심의 교육 과정을 기반으로 각 기관의 실정에 맞게 교육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이끈다. 놀이, 일상생활, 활동을 중심으로 일과를 구성하고 놀이가 충분히 이루어지도록 편성하고 운영할 수 있는 교사의 책임과 자율성을 강화한다.

### • 발도르프 영아교육과정

영아 중심·놀이 중심의 영아 교육을 실천할 수 있도록 영아 발달의 새로운 이해와 실행을 위한 교사의 실천적 역량을 키운다. 특히 발도르프 영아 교육의 특징인 존중과 협력적 돌봄의 이론과 실재를 배우고, 교사의 예술적 역량을 강화하여 영아 보육의 질을 강화한다.

### • 발도르프 현장리듬구성

발도르프 영유아 교육기관의 리듬생활을 실천하는 데 필요한 월별 교육내용을 중심으로 교육한다. 영유아를 새롭게 바라보는 교육자(발도르프 영유아 교육예술가)를 지향하여 내적 역량을 강화하고 예술성을 심화시키는 시간으로, 계절 노래와 손유희, 동화 등 매월 현장에 적용할 수 있는 실제적인 내용들로 구성하였다.

### • 발도르프 이야기와 동화 들려주기

‘이야기 들려주기’는 영유아의 놀이를 지원하는 교사활동으로 영유아의 언어발달과 정서발달에 따른 이야기와 동화를 선정할 수 있고 교요함 속에서 이야기를 들려줄 수 있는 실천적 방법론을 배운다.

### • 발도르프 유아 음악

발도르프 유아 음악은 듣기교육을 강조하며, 노래 부르기, 악기 연주하기(라이어), 움직임은 창의적으로 표현하기(아우디오패드)등 다양한 예술활동을 통해서 유아의 예술적 감각과 심미감을 키우는 교사의 실천적 역량을 강화한다.

### • 발도르프 영유아 미술

발도르프 영유아 미술은 자연이 제공하는 빛과 색체에 대한 경험을 중시하며, 습식수채화, 밀랍크레용 그리기, 밀랍점토 놀이 활동을 통해 영유아의 예술적 감각과 심미감을 발현할 수 있도록 교사의 실천적 역량을 키운다.

### • 발도르프 손유희와 라이젠

자연, 언어, 움직임의 형상을 예술적으로 표현하여 영유아기 감각을 깨우고, 과도한 자극과 기계소리에 대한 보호막을 형성해주는 발도르프 교육방법론으로 영유아의 예술적 감각과 심미감을 키우는 교사의 실천적 역량을 강화한다.

# 2021년 교육일정

## 한국슈타이너인지학센터 & 나임발도르프평생교육원

구분	내용	일시	대상	특전
2021 고용노동부 사업주위탁 환급과정	D 발도르프 현장리듬구성	총 10회, 56시간, 주말 토요일 1차 2월 20일 ~ 12월 18일 2차 2월 27일 ~ 12월 25일 3차 3월 13일 ~ 22년 1월 8일	발도르프교육을 지향하는 영유아 교육기관(어린이집, 유치원) 교직원 *고용보험가입대상자	1. 80%이상 출석시 교육비 90%환급  2. 국제발도르프교육예술가 3급, 신청자에 한함 (등록번호 2013-0410 민간자격증 취득, 검정비 별도)  3. 직무교육 이수증 수여 (평가제 지표 4-4-1)
	C 발도르프 영아교육과정_영아 보육의 핵심과 실제	총 7회, 21시간, 주말 토요일 1차 3월 13일 ~ 4월 24일 2차 9월 예정		1. 80%이상 출석시 교육비 90%환급  2. 직무교육 이수증 수여 (평가제 지표 4-4-1)
	A 발도르프 유아교육과정	총 7회, 28시간, 주말 토요일 1차 3월 20일 ~ 4월 17일 2차 9월 예정		1. 80%이상 출석시 교육비 89%환급  2. 직무교육 이수증 수여(평가제 지표 4-4-1)  3.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① 발도르프이야기전문가 3급, 신청자에 한함(등록번호 2020-004704 민간자격증 취득, 검정비 별도) *5환급 이야기와 동화 2회 + 워크숍 1회 모두 수강 완료시</li> <li>② 발도르프음악강사 3급, 신청자에 한함(등록번호 2020-004263 민간자격증 취득, 검정비 별도)</li> <li>③ 발도르프 미술강사 3급, 신청자에 한함(등록번호 2019-002907 민간자격증 취득, 검정비 별도) * 1환급 영유아미술 2회 + 워크숍 1회 모두 수강 완료시</li> <li>④ 발도르프손유희와라이겐 3급, 신청자에 한함(등록번호 2020-004705 민간자격증 취득, 검정비 별도) * E2환급 손유희와 라이겐 2회 + 워크숍 1회 모두 수강 완료시</li> </ul>
	B 발도르프 유아, 놀이중심	총 5회, 28시간, 주말 토요일 7월 31일 ~ 7월 31일		
	S 영유아 교사를 위한 이야기와 동화	총 5회, 21시간, 주말 토요일 1차 4월 24일 ~ 5월 22일 2차 5월 29일 ~ 6월 26일 3차 9월 ~ 10월 예정 4차 10월 ~ 11월 예정		
	E0 유아 교사를 위한 발도르프 유아음악	총 10회, 21시간, 화요 저녁반 1차 3월 2일 ~ 5월 4일 2차 9월 ~ 11월 예정  총 7회, 21시간, 주말 토요일 1차 5월 15일 ~ 6월 26일 2차 10월 ~ 11월 예정		
	E1 영유아 교사를 위한 발도르프 (영)유아미술	총 7회, 21시간, 주중 저녁반 1차 (수)3월 10일 ~ 4월 21일 2차 (목)5월 6일 ~ 6월 17일  총 7회, 21시간, 주말 토요일 1차 3월 13일 ~ 4월 24일 2차 9월 ~ 10월 예정		
	E2 영유아 교사를 위한 발도르프 손유희와 라이겐	총 7회, 21시간, 수요일 저녁반 1차 4월 14일 ~ 6월 9일 2차 10월 ~ 11월 예정  총 7회, 21시간, 주말 토요일 1차 5월 29일 ~ 7월 17일 2차 10월 ~ 11월 예정		

구분	내용	일시	대상	자격증 발급	
자격증과정	발도르프 미술강사 자격과정	3급 과정 총 12회, 36시간 주중반	발도르프 예술 교육에 관심있는 재직 교사 및 현직 강사	발도르프미술강사 급수별, 신청자에 한함 (등록번호2019-002907 민간자격증 취득, 검정비 별도)	
	발도르프 이야기전문가 과정			발도르프 이야기전문가 급수별, 신청자에 한함 (등록번호 2020-004704 민간자격증 취득, 검정비 별도)	
	발도르프 예술공예강사 자격과정			2급 과정 총 16회, 48시간 주중반	발도르프 예술공예강사 급수별, 신청자에 한함 (등록번호 2015-001426 민간자격증 취득, 검정비 별도)
	발도르프 손유희와 라이젠 지도자 과정			발도르프손유희와라이젠 급수별, 신청자에 한함 (등록번호2020-004705 민간자격증 취득, 검정비 별도)	
	발도르프 음악강사 자격과정	3급 과정 총 10회, 20시간 주중 저녁반		발도르프음악강사 급수별, 신청자에 한함 (등록번호2020-004263 민간자격증 취득, 검정비 별도)	

구분	내용	일시	대상
예술강좌 (온·오프라인 교차수업)	수공예	[수공예 인형 만들기]	총 6회, 12시간, 금요일 1차 2월 26일 ~ 4월 2일 2차 5월 ~ 6월 예정 3차 9월 ~ 10월 예정 4차 11월 ~ 12월 예정
	미술	[자연과의 대화 등, 식물 그리기_습식수채화] [형태그리기 시리즈]	총 8회, 24시간, 목요일 1차 5월 ~ 6월 예정 2차 9월 ~ 10월 예정
	음악	[Kinderlieder 연주법]	총 4회, 6시간, 화요 저녁반 1차 5월 또는 6월 예정 2차 9월 또는 10월 예정
	이야기 들려주기	[이야기 들려주기]	총 4회, 8시간, 수요일 9월 예정
	특강	[감각을 깨우는 계절환경꾸미기]	1회, 7시간, 토요 종일반 봄 2월 여름 6월 가을 9월 겨울 11월
	발도르프학교 초등생을 위한 자연과학 에포크 수업	초등학교 4~6학년 시기의 아동발달을 이해하고 수업의 교수법을 집중적으로 익힙니다. 동물학, 식물학을 시작으로 광물학, 천문학까지 다루어 수업의 도입과 전개를 배우고 모의수업을 통해 멘토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총 16회 (동물학 4회 / 식물학 4회 / 광물학 4회 / 천문학 4회) 2021년 9월 ~ 2022년 1월

※자세한 내용 및 일정은 한국슈타이너인지학센터 홈페이지(steinercenter.org) 또는 인지학센터 밴드를 참고하여 주세요.  
문의 02-832-052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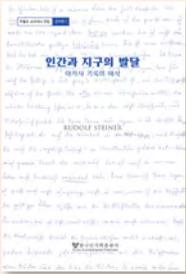
# 루돌프 슈타이너 전집 및 발도르프 교육서 소개



## 인지학 영혼달력 루돌프 슈타이너 명상시 52편

루돌프 슈타이너 지음 / 8,000원 / 발행 한국인지학출판사

발도르프 교육과 인지학의 창시자인 저자가 봄에 접어드는 4월 첫째 주를 시작으로 1년 52주, 52개의 잠언을 모아 엮은 책. 계절의 흐름에 따른 우주 순환과 자기 내면의 변화, 그리고 그 사이의 의미 가득한 연결을 생생한 이미지로 그려냈다.



## 인간과 지구의 발달 아카샤 기록의 해석

루돌프 슈타이너 지음 / 장석길, 루돌프 슈타이너 전집 발간위원회 옮김 / 25,000원 / 발행 한국인지학출판사

우주와 인류가 걸어온 역사의 본질은 무엇일까? “아카샤”(우주 만물)에 새겨진 생성과 발달의 흔적은 우리에게 어떤 이야기를 들려주는가? 인간과 지구의 발달을 설명하는 루돌프 슈타이너의 인지학 논집 <아카샤 기록으로부터>의 한국어 초역본.



## 루돌프 슈타이너 자서전 내 인생의 발자취

루돌프 슈타이너 지음 / 장석길, 루돌프 슈타이너 전집 발간위원회 옮김 / 35,000원 / 발행 한국인지학출판사

발도르프 교육학의 창시자, 인지학 설계자가 육성으로 들려주는 깨우침의 기록이자 고백록.



## 철학·우주론·종교

인지학에서 바라본 세 영역

루돌프 슈타이너 지음 / 루돌프 슈타이너 전집발간위원회 옮김 / 13,000원 / 발행 한국인지학출판사



## 괴테 세계관의 인식론적 기초

특별히 실러와의 관계를 참작하며

루돌프 슈타이너 지음 / 박지용 옮김 / 14,000원 / 발행 한국인지학출판사

인식의 한계에도 불구하고 인간은 사유를 통해 “정신이 현실인 세계” 안에 살게 된다는 것이 슈타이너 인식론의 결론이다. 그리고 이 결론의 철학적 원천은 괴테 저작의 “내적인 확실성과 조화로운 완결성”이었다. 이를 바탕으로 칸트 철학과 신칸트 학파의 인식론적 이분법을 극복하고 정신 세계의 현실을 지향하는 인지학이 창설된다. 슈타이너 인식론의 이해에 가장 중요한 전집 제2권의 첫 한국어 완역판.



## 발도르프 교육예술

루돌프 슈타이너 지음 / 17,000원 / 발행 한국인지학출판사

런던에서 발도르프학교를 모델로 하는 초등학교 설립이 결정되었을 때 그곳 초대 교사진을 위해 이루어진 강연을 기록한 책이다. 슈타이너 박사가 생전에 제공한 마지막 교육학 강좌로 주목 받는 이 자료를 통해 인간 본성을 중시한 발도르프 교육예술의 정수와 여러 교과목의 혁신적 교수방법론을 쉽게 이해할 수 있다.



## 발도르프 아동교육

발달 단계의 특성에 기초한 교육  
루돌프 슈타이너 지음 / 12,000원 / 이정희 옮김 / 발행 싱크스마트

발도르프 교육론은 자유로운 생각, 자발적인 표현과 사고 안에서 주체적인 사람으로 거듭나게 하는 교육 철학이다. 이 책은 창의 인성 교육에 관심을 가진 사람들에게 훌륭한 교육 지침서가 될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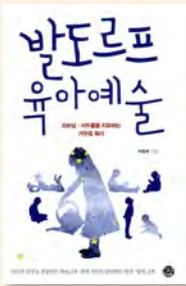
-박수찬(서울시 남부교육지원청 교육지원국장)



## 셋다온!

미디어 정글에서 우리 아이 구하기  
독일미디어 지음 / 여상훈, 이정희 옮김 / 12,600원 / 발행 한국인지학출판사

오늘날 디지털 미디어 환경은 우리 아이들에게는 새로운 가능성이자 저주가 되었다. 이 책은 발달 단계에 따라 미디어가 아이에게 미치는 치명적인 영향을 사례와 근거를 통해 보여주고 그 현실적 해결책을 제시한다. 미디어 교육의 기초에서 인터넷 사용을 위한 법률적 조언에 이르는 지침을 모두 담았다. 교육자와 부모의 필독서.



## 발도르프 육아예술

조바심·서두름을 치유하는 거꾸로 육아  
이정희 지음 / 14,000원 / 발행 싱크스마트

43가지 발도르프 육아 이야기  
인지 위주의 학습을 멀리하며 자유로운 놀이로 아이 고유의 본성을 이끌어 내는 한편, 건강한 신체 발달을 이루고 자신의 의지를 조절할 수 있게 해주는 교육이다.



## 교사 루돌프 슈타이너를 만나다

요한나 뤼케, 알빈 알프레트 루돌프 지음 / 여상훈 옮김 / 발행 한국인지학출판사

“슈타이너 박사는 학생들에 관한 일이라면 무엇에든 지극히 따뜻한 관심을 보였으며, 학생들의 고충과 희망에 늘 함께했다. ...주변의 모든 사람을 향한 그의 선함은 햇빛처럼 우리 모두의 삶을 밝혀 주었다.”

-요한나 뤼케



## 유아 그림의 수수께끼

성장의 발자국 읽기  
미하엘라 슈트라우스 지음 / 여상훈 옮김 / 24,000원 / 발행 한국인지학출판사

발도르프 교육의 고전, 영유아기 그림 언어에 담긴 수수께끼를 풀어주는 열쇠.



## 현장을 위한 영아보육학 아기는 놀이에서 배운다

모니카 알위 외 지음 / 이정희 옮김 / 발행 한국인지학출판사

이 책은 영아반의 이상적인 공간구성, 자유놀이 발달에 적합한 시기별 놀이감, 부모와 교사의 동행 방법을 구체적으로 조언한다.



## 발도르프 성교육

아동 발달을 토대로 한 성교육 지침  
마티아스 바이스, 엘케 뢰케, 미하엘라 글뢰클러, 볼프강 괴벨, 만프레드 반 도른 지음 / 이정희·여상훈 옮김 / 12,000원

발도르프 교육학자, 소아청소년과 의사, 심리상담 치료사가 교육적 관점으로 가정과 현장에서 아이들이 겪는 성의 발달에 어떻게 동행하고 성교육을 언제 시작해야 할지 기본 방향을 안내한다.

## 2021~22년 출간 예정 도서

### 〈루돌프 슈타이너 전집〉

일반인간학

정신과학적 인간 이해의 교육적 실제  
- 아동·청소년을 위한 교육

신비적 사실로서의 그리스도교

보이는 노래인 오이리트미·음악오이리트미 코스

비밀학 개요

괴테의 세계관

색채의 본질

### 〈발도르프 교육서〉

발도르프 치유교육

미카엘라 글뢰클러 / 김훈태 옮김

아우디오패디 - 듣기 예술

라인힐트 브라스 지음 / 이수영 옮김

발도르프 영아교육 지침서

발도르프학교 수공예수업의

대바늘뜨기와 코바늘뜨기

- 수공예의 형성과 발견

### 〈피클러 영아보육학 시리즈〉

자유놀이의 시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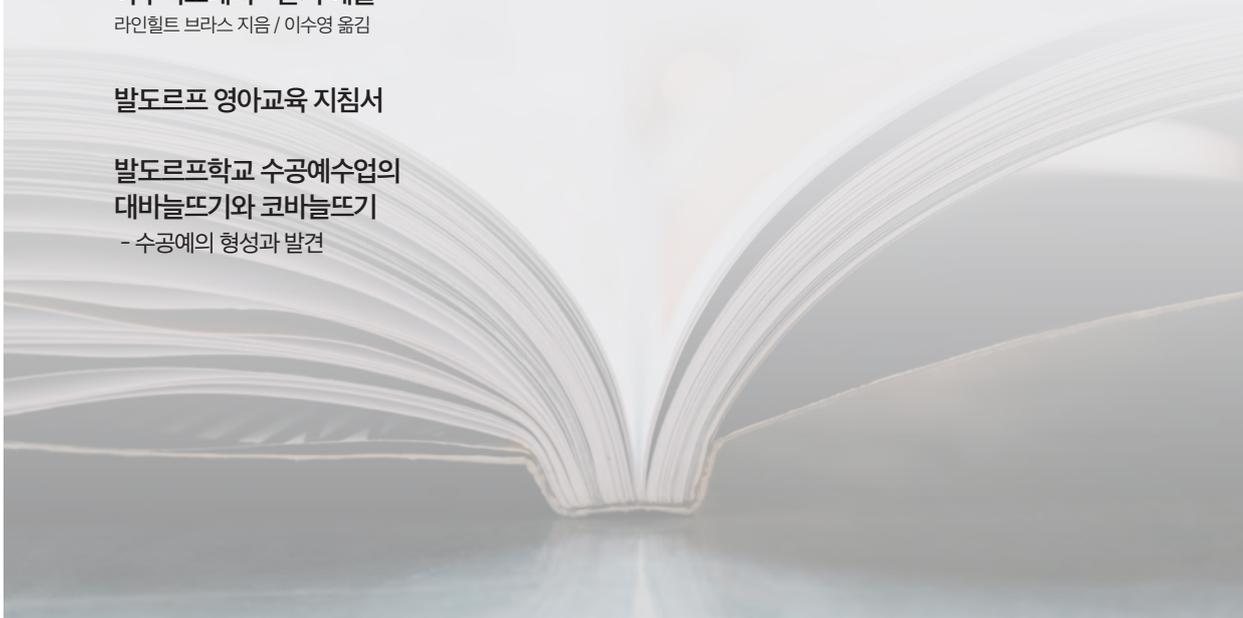
영유아를 위한 준비된 환경

나, 너, 그리고 우리

관찰하고 이해하고 동행하기

기저귀와 작별하기

아기와 대화하기



# 인지학 출판 프로젝트 2025



2016년 사단법인 한국슈타이너인지학센터는 발도르프 교육교재와 슈타이너전집 출간을 위해서 한국인지학 출판사를 설립하였습니다. 발도르프 교육운동의 질적 향상을 열망하는 여러분의 요청에 따라 슈타이너 타계 100주년이 되는 2025년까지 방대한 전집(GA) 354권 중에서 우리에게 긴요한 자료부터 번역, 출판하자는 뜻이 모여 “인지학 출판 프로젝트 2025”가 시작되었습니다. 이 프로

젝트의 실현을 위해 전집출간위원회가 만들어졌고, 위원회의 구성원들은 출판기금 마련과 자료 선정을 돕고 출판물의 보급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전집출간위원회는 발도르프 교육의 확산과 인지학 정신문화 운동에 공감하며 적극 동참하실 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번역과 출판 계획을 포함한 자세한 내용은 센터 홈페이지(<http://steinercenter.org>)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신한은행 140-009-321956 한국슈타이너인지학센터  
\*1구좌 100,000원  
\*입금자명에 [출판]후원자임을 기재 부탁드립니다.

## 동반자가 되어주셔서 고맙습니다. (2016-2021년 3월 현재)

D.모로 H자이델 M레버 P랑 강아미 강애란 강자경	(사)한국슈타이너인지학센터	부산자유발도르프학교
고도겸 구태영 권금례 권영완 권희려 김관우 김꽃님	(주)W네트웍스(벨레다)	부산자유발도르프학교 교육부
김남희 김미서 김백기 김세한 김송미 김수남 김영미	(주)삼화알미늄	부천자유발도르프학교
김용인 김윤희 김정기 김정기 김정임 김철기 김태영	(주)아이보트 투어	서울발도르프연구소
김태희 김현주 김훈태 모명숙 모명숙 문지숙 문지숙	가정어린이집	슈타이너사상연구소
문지은 박계옥 박계옥 박애란 박용옥 박춘신 배건호	강남발도르프킨더가르텐	어린이박물관카페 '도담도담'
배건호 백선미 석진미 선우숙 손석심 손에녹 송광수	강서햇빛발도르프킨더가르텐	영유아교육연대
송미령 송윤경 신동춘 신미현 신영주 신은주 안미순	금호어린이집	울현발도르프킨더가르텐
안소희 안지환 여상훈 오경희 오윤선 오해년 윤인영	길벗사과농장	이화영유아발달연구소
윤정민 윤정원 윤정원 이기림 이미영 이미정 이상윤	나임발도르프평생교육원	이화유지원
이상희 이선아 이소영 이소윤 이연희 이윤옥 이은희	대전자유발도르프학교	인지학센터치유교육소모임
이정자 이정화 이정화 이정희 이지영 이진우 이창미	도서출판 씽크스마트	잇다자유학교
임지영 장구지 장서원 장서원 장은심 정다운 정다운	동그라미발도르프어린이집	파팔라코리아
정재연 진금주 천경자 최계연 최분희 최종희 최한희	마리아의종 어린이집	한울어린이집
하건호 하주현 하태훈 하태훈 한남희 한미경 한미경	미래숲유치원	항동발도르프킨더가르텐
한은숙 함형진 함형진 홍귀자 홍명애 홍윌문 황인철	발도르프프유아교육동문회	홍성밀크퀵살

프로젝트에 동참하실 분들은 신청안내(67페이지)를 참고해 주세요. | 이름이 누락된 경우 센터로 연락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 뜨거운 응원



든든 버팀목

후원회원 **1000명** 을 모십니다

사단법인 한국슈타이너인지학센터는 2000년 발족하여 2008년 사단법인으로 등록되어  
기관연회비, 든든 버팀목 후원금(CMS)과 교육비로 운영되고 있는 비영리 단체입니다.

## 기관회원

### 2019 기관회원

- (시흥)초록나무어린이집
- 강남발도르프킨더가르텐
- 강남울림발도르프킨더가르텐
- 강서햇빛발도르프어린이집
- 고양이뜰 어린이집
- 구립꿈마루어린이집
- 구립울림픽파크꿈별어린이집
- 구립크니크니어린이집
- 금강펜테리움어린이집
- 꿈꾸는어린이집
- 낙원어린이집
- 또래숲속학교
- 바람아래발도르프킨더가르텐
- 반석어린이집
- 별빛어린이집
- 부천동그라미어린이집 대표
- 빛의아이들킨더가르텐
- 사과나무어린이집
- 서마어린이집
- 서울빛들발도르프학교
- 서울정릉발도르프학교
- 서초구립아이숲어린이집
- 서초구립포레스타6단지어린이집
- 소사주공어린이집
- 쉐마숲선교원
- 슈타이너사상연구소
- 시립고양어린이집

- 신정4동어린이집
- 아이조아 어린이집
- 오금숲어린이집
- 우림별빛어린이집
- 자연발도르프유치원
- 자연발도르프유치원
- 자연어린이집
- 작은동지어린이집
- 큰다우리발도르프어린이집
- 한빛어린이집
- 향동발도르프킨더가르텐
- 해가람어린이집
- 행복한발도르프유치원
- 화랑어린이집

### 2020 기관회원

- 강서햇빛발도르프어린이집
- 구립사과꽃어린이집
- 금빛어린이집
- 금호어린이집
- 꿈꾸는어린이집(용산)
- 낙원어린이집
- 도담어린이집
- 동그라미발도르프어린이집
- 또래숲속학교
- 바람아래발도르프어린이집
- 발도르프 하늘숲 선교원
- 별꽃씨어린이집

- 별빛어린이집
- 서머힐어린이집
- 서울 빛들 발도르프학교 사회적협동조합
- 신정4동 어린이집
- 영천 미소지움어린이집
- 오금숲어린이집
- 자람어린이집
- 자연발도르프유치원
- 자연어린이집(용산)
- 청소년플러스 끌림
- 크니크니어린이집
- 향동발도르프어린이집

### 2021 기관회원

- 강서햇빛발도르프 어린이집
- 구립 꿈마루어린이집
- 구립오금숲어린이집
- 구립울림픽파크꿈별 어린이집
- 국공립송파꿈꾸는어린이집
- 금호어린이집
- 꽃가람발도르프어린이집
- 꿈꾸는어린이집
- 도담어린이집
- 두빛나래터발도르프어린이집
- 또래숲속학교
- 미소지움어린이집
- 바람아래발도르프 어린이집

- 발도르프킨더가르텐 빛의아이들
- 별빛어린이집
- 서초나무어린이집
- 서초구립 아이숲어린이집
- 서초구립 포레스타6단지어린이집
- 소사주공어린이집
- 수잔나어린이집
- 시립고양어린이집
- 시립장현루벤시아2차어린이집
- 시립햇빛어린이집
- 아이마을 등구나무 어린이집
- 여월주공어린이집
- 영아아이조아어린이집
- 우방아이유웰어린이집
- 자람어린이집
- 자연발도르프유치원
- 자연어린이집
- 크니크니어린이집
- 큰다우리발도르프어린이집
- 풍덩이감성놀이터
- 하늘숲선교원
- 향동발도르프 어린이집
- 향동발도르프킨더교육원
- 햇빛자연발도르프어린이집
- 햇살아래보듬이나눔어린이집
- 행복한발도르프어린이집
- 화랑어린이집
- 희수자연학교어린이집

발도르프 교육 운동에 뜻을 함께하고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주실 분들의 후원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정기후원을 원하시는 분은 CMS 후원을 전화(02-832-0523)와  
 홈페이지(http://steinercenter.org/)를 통해서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신한은행 140-009-321956 (사)한국슈타이너인지학센터**  
**나눔을 실천해 주신 버팀목 후원회원님들 고맙습니다!**

**2020년 1월 ~ 2021년 3월 버팀목 정기후원**

KWACK K 강성수 강아미 강애란 강애란 강윤숙 강자경 강정화  
 강환욱 강효은 고미숙 고민아 고혜경 곽시내 곽해정 구나래  
 구태영 권수자 권연주 권영완 권현정 권희정 길종각 김갑식  
 김경주 김경화(햇빛자연) 김계연 김관우 김광선 김근화 김길섭  
 김나현 김남희 김다혜 김덕윤 김도형 김동욱 김동중 김동현  
 김동현 김미미 김미서 김미정 김미현 김민영 김병철 김보라  
 김보민 김상미 김선아 김선주 김선집 김성숙 김세정 김세환  
 김세훈 김승미 김숙경 김영미 김영선 김영숙 김영인 김용원  
 김윤미 김윤희 김윤희 김은숙 김은실 김은정 김은희 김일선  
 김자경 김정순 김정연 김종욱 김중현 김주선 김주연 김지미  
 김지숙 김지영 김지은 김천숙 김충환 김태욱 김태영(핑크스마트)  
 김해련 김현경 김현자 김현정 김혜원 김혜전 김훈태 김희연  
 김희원 김희정 남가희 남미영 남영순 남옥인 남주현 노재민  
 노지원 노택균 도서출판푸른씨앗 동지영 라경혜 류명숙 류미리  
 문소영 문지윤 문지은 민영숙 박동진 박미숙 박복실 박상연  
 박선영 박성숙 박세정 박수경 박승이 박용욱 박은영 박재용  
 박정열 박정은 박지원 박필용 박향연 박현정 박현철 박혜경  
 박혜영 배숙경 백미희 백선미 백선미 백수명 백승미 백승은  
 백승주 서경희 서미정 서승미 서지희 석은녕 선우숙 설하영  
 손명희 손민정 손병숙 손석심 손옥진 송경수 송광수 송미령  
 송윤경 송정은 송지윤 신미현 신순영 신승혜 신영주 신은주  
 신인자 신지영 신현선 신호진선생님 심기성 안만순 안명희  
 안병은 안봉균 안소희 안지은 안지환 안형주 안희정 양경미  
 양영주 양현정 여상훈 연태순 오경희 오금희 오미진 오미희  
 오유진 오윤선 오지은 오해녀 오화남 용소연 우수현 우영희  
 유미진 유병현 유상영 유선영 유주연 유혜영 윤서영 윤양순  
 윤영아 윤인영 윤정민 윤정원 윤진숙 윤창환 윤채원(윤소영개명)  
 윤효원 은혜어린이집 윤성아원장님 이강두 이건희 이경 이경옥  
 이남순 이대형 이명화 이미구 이미숙 이미영 이미화 이민아  
 이민영 이보라 이서경 이선아 이선주 이소영 이소윤 이소현  
 이신자 이연희 이연희 이영선 이영숙 이유선 이윤옥 이윤정

이은경 이은경 이은옥 이은정 이은정 이은정 이은주 이은혜  
 이재현 이재희 이정란 이정미 이정숙 이정자 이정화 이정희  
 이주영 이준우 이지영(이상윤) 이지은 이지현 이진우 이창미  
 이현주 이현주 이현주 이현주 이해련 이해승 이해연 이해정  
 이화연 이환웅 임기홍 임명숙 임수진 임숙자 임승미 임영란  
 임영주 임우선 임윤희 임은정 임은진 임은화 임정미 임지연  
 임지영 임채나 장구지 장서원 장선경 장세경 장은심 전귀옥  
 전난영 전민선 전영희 전정현 전해정 정경임 정나래 정나래  
 정다운 정명화 정선 정수정 정수희 정윤미 정은경 정은미 정은미  
 정재연 정재영 정지민 정지영 정향미 정현남 조미연 조미영  
 조미형 조용미 조일석 조정하 조지현 조혜선 조혜영 지현애  
 진금주 차일순 천경자 최계연 최공주 최로사 최미나 최민호  
 최분희 최석원 최선호 최성희 최수진 최순영 최아름 최영서  
 최영순 최유미 최유진 최은애 최은영 최인숙 최정진 최주옥  
 최진형 최한희 최향락 최현성 최혜경 평명신 하주현 하태훈  
 한교숙 한기옥 한성호 한요엘 한은숙 한재용 한혜은 허설향  
 허윤정 허정희 허지혜 허혜무 현상두 현진성 홍경희 홍귀자  
 홍명애 홍유영 홍울문 홍은정 황선호 황영순 황인화 황지연

**2020년 1월 ~ 2021년 3월 특별후원**

강아미 길벗농장 김승미 김훈태 부산인지학연구회  
 부산자유발도르프 송광수 신영주 오경희 우수미 이미화 이윤옥  
 이재희 이정자 이정희 이진우 이창미 프라네발도르프  
 마가레타 레버

**코로나19 후원금에 감사드립니다**

김병욱 법무사 김참섭 부산인지학연구소 송광수  
 슈타이너사상연구소 김훈태 신영주 여상훈 오경희 이윤옥  
 이재희 이정자 이정희 이진우 이창미 이화영유아발달연구센터  
 배건호 마가레타 레버 (주)삼화알미늄

\* 이름이 누락된 경우 센터로 연락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 후원자를 찾습니다!



## 든든버팀목 후원

더 큰 미래를 향해 새로운 모습으로 자라겠습니다. 발도르프 교육운동의 확산을 위해 (사)한국슈타이너인지학 센터의 든든버팀목 후원회원이 되어주세요. 든든버팀목 후원은 매월 일정금액을 지속적으로 후원해주시는 방법입니다. 후원금은 인지학센터가 장기적으로 지속 가능한 계획을 세워 발도르프 교육운동을 펼쳐가는 데 큰 힘이 됩니다. 한 달에 한 번, 약속한 날짜에 해당계좌에서 출금이 이루어집니다. 월 1만원부터 자유롭게 후원하실 수 있습니다. 소중한 당신을 후원자로 초대합니다.

## 인지학 출판 프로젝트 2025 후원

〈인지학 출판 프로젝트 2025〉는 2025년까지 루돌프 슈타이너(Rudolf Steiner 1861-1925)의 저서와 강연록 등으로 이루어진 전집을 우리글로 번역·출판하는 프로젝트입니다. ‘인지학 출판 프로젝트 2025’ 후원은 100,000원을 1구좌로 하는 일시후원입니다. 전집 번역의 필요성을 공감하시는 분들이 일회성으로 후원해주시는 방법입니다. 1구좌부터 자유롭게 후원하실 수 있으며 후원금은 출판 및 번역을 위하여 사용됩니다. 한 번의 후원이라도 그것들이 모이면 한국에 인지학이 더욱 깊이 뿌리내릴 수 있는 힘이 됩니다. 인지학과 발도르프 교육을 더 많은 분들과 더 깊이 나누기 위한 여러분의 동참을 기다립니다.

“

**CMS 후원, 출판 후원 모두가 연말정산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인지학센터에 후원금 영수증을 신청하면 기부금 영수증을 발급해 드립니다.

”

### 후원 방법

우편, 팩스, 이메일, 또는 카카오톡 사진 중 편한 방법으로 신청서를 보내주세요.

#### 보내실 곳

우편 서울특별시 마포구 독막로 230 우리빌딩 2층

팩스 02-832-0526 | 이메일 anthroposophy@hanmail.net

카카오톡 steinercenter | 문자 010-5209-0532(사진 전송 가능)

문의 인지학센터 02-832-0523

# 2020년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1~12월)

안녕하십니까? 사단법인 한국슈타이너인지학센터입니다. 지난 한해 인지학센터의 버팀목이 되어주신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사)한국슈타이너인지학센터는 법인세법 시행령(제36조)에 근거한 지정기부금단체로 발도르프 교육운동을 지지하고 지원하는 후원자들의 뜻을 모아 다음과 같은 후원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 발도르프 교육을 널리 알리기 위한 홍보사업
- 발도르프 교육인재를 지원하는 장학사업
- 슈타이너전집 출판을 위한 연구사업
- 발도르프 교육현장 지원사업

본 법인 정관 7장 32조에 근거하여 2020년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을 아래와 같이 공지합니다.

## 1. 기부금의 수입·지출 금액 (단위 원)

월별	수입	지출	월별	수입	지출
전기이월	31,821,588		7월	4,096,020	87,120
1월	3,014,100	88,020	8월	6,553,270	86,400
2월	3,030,520	88,080	9월	2,977,034	87,480
3월	9,937,131	30,087,180	10월	2,923,720	10,087,120
4월	12,675,225	10,086,520	11월	2,943,940	5,086,040
5월	6,463,040	5,086,880	12월	13,306,911	86,580
6월	5,671,613	15,087,000	합계	105,414,112	76,044,420
			차이이월		29,369,692

## 2. 기부금 지출 내역

지출월	지급목적	지급건수	금액
10월/11월	장학금 지급	2	3,135,535
1월~12월	번역사업 (슈타이너전집외))	24	39,190,948
6월	센터 소식지 발간 외	1	2,897,989
1월~12월	후원금 결재분 거래수수료	53	1,044,420
1월~12월	발도르프교육과정연구 및 개발비	12	24,732,528
12월	평생교육 사업지원	1	3,000,000
1월~12	오이리트미 사업지원	12	5,040,000
합계			76,044,420

# 사단법인 한국슈타이너인지학센터 후원 신청서

## 후원자 정보

이름		생년월일	
연락처		휴대전화	
주소			
이메일			

\* 든든 버팀목 후원과 인지학 출판 프로젝트 후원을 모두 선택하실 수 있습니다.

## 후원 종류 및 후원정보

선택 체크 (중복 가능)		상세 사항						
□	든든 버팀목 후원 (CMS)	정기 후원금(택 1)	월	<input type="checkbox"/> 1만원	<input type="checkbox"/> 2만원	<input type="checkbox"/> 기타	원	
		출금예정(택 1)		<input type="checkbox"/> 매월 5일	<input type="checkbox"/> 매월 15일	<input type="checkbox"/> 매월 20일	<input type="checkbox"/> 매월 25일	
		은행명		계좌번호				
		예금주		예금주 주민등록번호앞6자리				
□	인지학 출판후원 (비정기)	후원금(택1)	<input type="checkbox"/> 1구좌 100,000원		<input type="checkbox"/> 2구좌 200,000원	<input type="checkbox"/> 자율구좌	원	
		*인지학 출판 프로젝트 후원은 일시 후원입니다.						
		입금자명						
		후원일		년	월	일		
□	특별후원 (비정기)	후원금						
		입금자명						
		후원일		년	월	일		
* 후원계좌 신한은행 140-009-321956 (한국슈타이너인지학센터)								

본인은 인지학과 발도르프 교육운동에 동참하고자 위와 같이 후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인 또는 서명)



사람과 자연을 생각하는 농업

| 사회적 가치를 추구하는 농장



주소 강원도 홍천군 서석면 장수원로 75-51

전화번호 033-433-7653 (농장) 010-8337-7653 (길종각)



### 뜨라네 발도르프

아이에게 주는 놀잇감은 단순한 형태이어야 한다.  
가짜가 아닌 진짜의 놀잇감이  
아이들의 성장 발달에 도움을 준다.



#### 품목

- 발도르프 인형
- 발도르프 놀잇감
- 발도르프 미술용품
- 발도르프 음악용품
- 피클러 움직임교구
- 양모 놀잇감

- 발도르프 교육 현장에 필요한 놀잇감의 완제품 또는 재료, 교구 구매 가능합니다.
- 물품 전시장: 서울시 마포구 독막로 230 우리빌딩 2층
- 상담 문의: 02-832-0523, 010-6277-3732 (대표 한은숙)
- E-Mail: smallhan60@hanmail.net

“아이들을 가르치고 기르는 것은  
현재 속에서 미래를, 물질 속에서 정신을,  
지상의 삶 속에서  
정신적 존재를 돌보는 일입니다.”

루돌프 슈타이너 (1861-1925)



그림: 안미순, 2015년

사단법인 한국슈타이너인지학센터  
Center for Anthroposophy in Korea

04090 서울 마포구 독막로 230 (신수동) 우리빌딩 2층·6층  
T. 02-832-0523 | F. 02-832-0526 | anthroposophy@hanmail.net  
인쇄비 2,000원